

제 25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겸
제 6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발대회

한체대 대표 6명 배출, 최강팀으로서의 저력 보여 세계대학선수권 남녀 대표 16명 확정



여자부 헤비급 결승에서 경희대 신경현(왼쪽)이 고려대 권저희에게 왼발돌려차기로 얼굴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다. 신경현이 10-5로 판정승을 거두고 대표로 선발되었다.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은 오는 11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 6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대표선수 16명을 선발했다. 지난 8월 27일과 28일 이틀간 국기원에서 거행된 제 25회 전국대학개인선수권대회는 제 6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 파견할 국가대표선발전을 겸해 개최됨으로써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34개교에서 381명의 선수가 출전해 최고의 기량을 겨루었다.

이번 대회 결과 한체대는 남녀 각 3명씩 모두 6명의 대표를 배출하며 대학 최강팀의 저력을 보여

주었다. 한체대의 남자 대표는 민병석(편급), 이광수(플라이급), 노현구(페더급), 여자대표로는 윤송희(편급), 최유라(플라이급), 안근아(웰터급)가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다.

또한 동아대와 경희대가 각각 3명의 대표를 배출했다. 동아대는 남자 2체급, 여자 1체급을 배출했는데 김민우(미들급), 문대성(헤비급)과 여자부의 김수현(라이트급)이 선발되었다. 경희대는 남자부 장순호(웰터급), 여자부 채혜경(밴텀급), 신경현(헤비급)이 선발되었다.

상명대는 여자부에서 강해은(페더급)과 하민숙

(미들급)등 2명의 대표를 배출하며 여자부 강팀으로서의 전통을 지켰다. 그밖에 남자부에서 청주대에서 김광수(밴텀급), 용인대에서 이준희(라이트급)등 각각 1명의 대표를 배출했다.

남자부 핀급 결승전에서는 96년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민병석이 김태원(동아대)을 맞이하여 빠른발 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리고 상대방의 나래차기에 실점하는 등 팽팽한 경기를 보이다 3-2로 승리를 거둬으로써 세계대학선수권대회 2연패를 바라보게 되었다.

플라이급 경기에서는 올해 국가대표로 98년도 월드컵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낸 정대영(한체대)이 초반에 탈락하는 이변을 보였다.

정대영은 첫 경기서 전재현(관동대)을 맞아 주먹 공격과 빠른발 돌려차기 등으로 4-3 판정승을 거두고 2차전에 올랐으나 한체대의 이광수에게 2-1로

판정패함으로써 탈락했다. 정대영을 이기고 8강에 진출한 이광수는 전형준(성균관대)과 팽팽한 접전을 펼친 끝에 2-2 동점에 우세승을 거두고 준결에 진출, 전 국가대표 박희철(성균관대)을 2회 RSC승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청주대의 김태호를 맞이한 이광수는 빠른 발차기와 오른발돌려차기를 주특기로 3-1로 승리함으로써 세계대학선수권대회 대표로 선발되었다.

페더급 결승은 183cm의 노현구와 이보다 7cm 작은 조승원(용인대)의 대결이었다. 신장이 큰 노현구는 거리를 넓히며 주먹 공격과 뒷차기, 나래차기 등 화려하고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며 6-5 판정승을 거두었다.

라이트급 결승은 용인대의 이준희와 경희대 김정수가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 순발력이 뛰어난 이준희가 빠른발 공격을 적중시키며 3-2 판정승을 거

“태권도 뿐만 아니라 학과 성적도 1등”

남자 최우수선수상 - 한체대 민병석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를 최우수선수로 선발해 주셔서 무한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남자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핀급 우승자 민병석의 소감이다.

최경량급임에도 불구하고 174Cm의 큰 키와 뛰어난 순발력으로 빠른 발 기술과 뒷차기를 주특기로 핀급 우승을 차지한 그는 태권도 실력 뿐만 아니라 학과 성적도 우수해 2학년에 서 전체 1등을 차지한 있는 문무를 겸비한 모범학생이다.

이번 대회에서 고려대의 손우락과의 경기가 가장 힘들었으나 원발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끝까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한 것이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고 말한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울을 이용한 발차기 연습을 통해 자세를 바로잡고 정확한 발차기, 스텝을 기른다는 그는 지난 96년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함으로써 올해 2연승을 바라보게 됐다. 시합 일주일 전부터 손톱과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시합전날 밤에는 일기를 꼭 쓰고 자는 버릇이 있다는 민병석은 시합날 아침 뜨거운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고 시합에 들어가기 직전 숨을 크게 들여마신다고.

민병석은 “정상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노력하겠다고 한다.



두고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다.

미들급은 올해 국가대표로 98년도 월드컵대회 금메달리스트인 김민우(동아대)와 96년도 세계대학선수권대회 대표선수로 은메달을 차지한 바 있는 안용준(성균관대)의 명승부가 펼쳐졌는데 결국 5-3으로 김민우가 승리를 거두었다.

헤비급은 96년도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이 대표로 선발됨으로써 2연패를 바라보게 되었다.

여자부 편급은 전 국가대표 박정희(한체대)가 1차 예선에서 한체대의 이선영에게 3-2로 패배하고 탈락했다. 97년도 세계여자선수권대회 은메달과 98년도 월드컵대회 동메달리스트인 윤송희(한체대)는 결승에서 경희대의 전성아와 득점을 주고 받는 팽팽한 접전을 벌인 끝에 5-5 동점을 이루어 우세승으로 힘겹게 대표로 선발되었다.

플라이급은 한체대의 최유라가 올해 국가대표인 김병희(용인대)를 맞아 뒷차기 받아차기 등으로 8-6 판정승 거두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되는 기쁨을 누렸다.

밴텀급에서는 '97 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이며 올해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정재은(한체대)이 8강에서 전기숙(성신여대)에게 2-1로 판정패하며 탈락하는 이변을 보였다. 결승에서는 경희대 채혜경이 성신여대 전기숙을 2-1판정으로 이기고 대표가 되었다.

페더급 결승은 경성여실고 2년 선후배인 강해은(상명대)과 장지원(한체대)의 대결이었다.

고교 1학년 때부터 원발 뒷차기, 오른발 돌개차기, 나래차기 등 고난도의 기술을 과감히 펼치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지난해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바 있는 강해은이 패기로 맞서는 장지원의 빠른발 공격과 원발 돌려차기, 뒷차기 공격을 받아차는 접전 끝에 10-6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승리했다.

웰터급에서는 올해 국가대표로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미영(고려대)이 8강에서 안근아(한체대)에게 득점을 내주며 3-2로 안타깝게 탈락했다. 안근아는 결승에서 김유진(경희대)을 4-2로 누르고 승리했다.

올해초 인대와 근육 부상 - 강인한 정신력으로 극복

여자 최우수선수상 - 상명대 강해은

오른쪽 다리 인대 부상과 근육 파열상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몸 관리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페더급 우승자 강해은이 여자부 최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도복을 입어보고 싶어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한 강해은은 용곡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합에 출전하기 시작, 지난해 홍릉에서 개최된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세계 정상의 선수로 성장했다. 경기를 앞두고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와 손톱을 자르는 버릇이 있는 강해은은 시합 당일 날 비가 오면 몸과 마음이 다 처져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징크스가 있다고.

강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강문섭 코치는 여자선수로서는 보기 드물게 탄력성을 이용한 원발 앞차기와 나래차기가 일품인 데다 승부근성과 성실함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2천년 올림픽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대회에서 이름을 떨칠 선수라고 강선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들급에서도 지난해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우연정(고려대)이 1차 예선에서 경희대의 박은희에게 4-2로 탈락하는 이변을 보였다.

준결에서 용인대 윤현정에게 우세승을 거두고 결승에 오른 하민숙(상명대)과 준결에서 박은희를 4-3으로 이기고 결승에 오른 이옥미(성신여대)의 결

승전은 득점을 주고 받는 치열한 접전 끝에 하민숙이 5-4로 어렵게 승리를 거두었다.

해비급은 신경현(경희대)이 빠른발로 뒷차기, 오른발 받아차기 등 연속공격으로 올해 국가대표로 '98월드컵대회 금메달리스트인 권지희(고려대)를 10-5로 누르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화제의
팀

신생팀 군장대 태권도부 금 2 은 2 동 3개 획득

지난 8월 27일과 28일 국기원에서 펼쳐진 전국대학개인 선수권대회에 처녀출전한 군장대학팀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등 모두 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화려하게 데뷔전을 장식했다. 군장대학은 올해



송승건 감독 지도상 수상 “기대 이상의 성과 거두었다”

관광스포츠학과 신설과 함께 태권도부를 창단해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하게 된 것.

이번 대회에서 전적이 없는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보이는 남자 B조 경기에 모두 9명의 선수가 출전, 이중 7명의 선수가 뛰어난 기술을 발휘하며 입상, 돌풍을 일으켰다. 군장대학 태권도부 지도교수로 지도상을 수상한 송승건 감독(관광스포츠학과 학과장)은 “태권도가 올해부터 군장대학의 교기로 선정되었고 이종록 학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의 태권도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단히 높다”고 소개하며 “선수들이 경

험이 부족하고 짧은 훈련기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 같다”며 열심히 노력해준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태권도 선수들을 지도해온 강용선 코치는 “학교에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으로 별 어려움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를 앞두고 매일 새벽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체력훈련과 기술훈련에 전념해 왔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지도해 “군장대학 태권도부를 대학 태권도 명문팀으로 키우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세계대학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발대회

남자A조

체급	등위	성명	소속학교
핀급	1	민병석	한체대
	2	김태원	동아대
	3	김광호	한체대
플라이급	1	정진성	경희대
	2	이광수	한체대
	3	김태호	청주대
밴텀급	1	임윤현	용인대
	2	조익래	상명대
	3	김향수	청주대
페더급	1	홍률락	경희대
	2	강만수	인천전문대
	3	이동철	용인대
라이트급	1	노현구	한체대
	2	조승원	용인대
	3	신준식	경희대
웰터급	1	김인동	조선대
	2	이준희	용인대
	3	김정수	경희대
미들급	1	김원덕	경상대
	2	장순호	경희대
	3	신원일	한체대
헤비급	1	정환백	용인대
	2	김부권	조선대
	3	김민우	동아대
헤비급	1	안용준	성균관대
	2	정우영	경상대
	3	이경호	충남대
헤비급	1	문대성	동아대
	2	박훈순	경희대
	3	박선홍	용인대
헤비급	1	최형민	계명대
	2		
	3		

임상자명단

남자B조

체급	등위	성명	소속학교
핀급	1	박동선	성화대
	2	이채구	성화대
	3	최종희	태성대
플라이급	1	석정호	군장대
	2	민용기	신성대
	3	김윤수	건양대
밴텀급	1	우광희	신성대
	2	허영배	조선대
	3	정길용	성화대
페더급	1	김일진	군장대
	2	현동훈	제주관광대
	3	최윤석	경민대
라이트급	1	이광민	군장대
	2	김대석	성화대
	3	이명훈	경민대
웰터급	1	신동욱	인천전문대
	2	김영환	군장대
	3	김종선	경민대
미들급	1	최운규	건양대
	2	김광영	성화대
	3	이경만	성화대
헤비급	1	박청수	군장대
	2	허정성	제주관광대
	3	김창재	군장대
헤비급	1	최용석	경민대
	2	김성훈	명지대
	3	이육진	성화대
헤비급	1	강연균	군장대
	2		
	3		

여자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학교
핀급	1	윤송희	한체대
	2	전성아	경희대
	3	정선영	상명대
플라이급	1	이선영	한체대
	2	최유라	한체대
	3	김병희	용인대
밴텀급	1	인순영	강원대
	2	주혜원	한체대
	3	채혜경	경희대
페더급	1	전기숙	성신여대
	2	김진희	용인대
	3	조영란	성신여대
라이트급	1	강혜은	상명대
	2	장지원	한체대
	3	정미향	목원대
웰터급	1	김혜옥	성신여대
	2	김수현	동아대
	3	조미례	한체대
미들급	1	류소현	우석대
	2	김소연	목원대
	3	안근아	한체대
헤비급	1	김유진	경희대
	2	김미영	고려대
	3	서영하	용인대
헤비급	1	하민숙	상명대
	2	이옥미	성신여대
	3	윤현정	용인대
헤비급	1	박은희	경희대
	2	신경현	경희대
	3	권지희	고려대
헤비급	1	정영혜	한양대
	2	김윤경	상명대
	3		

한편 대회 전적이 전혀 없는 동아리 선수들이 출전해 태권도의 기량을 겨룬 남자부 B조 경기에는 건양대, 경민대, 경희대, 군장대, 명지대, 성화대, 신성대, 인천전문대, 제주관광대, 조선대, 태성대학 등 모두 11개교에서 54명이 출전하여 기량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 가장 많은 10명의 선수가 출전한 성화대는 박동선(핀급), 정길용(밴텀급), 이경만(웰터급)이 금메달, 이채구(핀급), 김대석(페더급)이 은메달, 김광영(라이트급), 이육진(헤비급)이 동메달을 차지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태권도부를 창단하여 대회에 출전한 군장대학은 이광민(페더급), 김영환(라이트

급)이 금메달, 김일진(밴텀급), 박청수(웰터급)가 은메달, 석정호(핀급), 김창재(웰터급), 강연균(헤비급)이 동메달을 따내는 등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신흥 명문으로 부각되었다. 이번 대회결과 남녀 최우수선수상은 한체대의 민병석과 상명대의 강혜은에게 돌아갔고 지도상은 한체대 문원재 코치, 경희대 이경호 코치, 군장대의 송승건 감독이 차지했다. 또한 우수심판상은 김기용, 김광현 씨가 수상했다.

11월 멕시코대회 종합우승 목표

세계 각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며 우의를 다지는 젊은이들의 축제인 세계대학선수권대회는 1986년도에 창설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해 오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거행된다.

역대 전적을 보면 한국은 미국 버클리에서 거행된 1회 대회 때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한 이래 지난 96년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거행된 5회 대회지 줄곧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종주국으로서의 위력을 떨친 바 있다.

한국대학연맹의 이승국 전무이사(한체대교수)는 올해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목표로 강화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을 가장 위협할 상대국으로 대만과 함께 체력과 체격면에서 월등한 유럽선수들이라고 지적한 이 교수는 “체력이 우수하고 경기를 노련하게 풀어나가는 경기 운영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제의 인물

“태권도선수에게 한방치료가 효과적”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지정닥터 김진돈 씨



“태권도 경기에서 선수들은 주로 타박상과 무릎 관절, 발가락 부상이나 인대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의 지정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돈 씨(운체당 한의원 원장·30)는 대학연맹이 주최하는 대

회 때마다 경기 중 부상을 당한 선수들을 치료하기에 바쁘다. 그에 따르면 선수들이 가장 많이 입는 부상은 타박상과 인대나 뼈의 손상인데 이럴 때 부목이나 침 등으로 신속한 치료를 하고 있다. 뼈를 다친 선수들의 경우 특히 침으로 치료하는 한방의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한의사로서는 태권도계 최초로 3년전부터 지정닥터로 활동을 시작한 김진돈씨.

대한스포츠상해예방운동협회 전문이사로 있는 그가 처음 지정닥터로 활동하던 종목은 우슈였다. 우연히 우슈경기장을 방문한 대학태권도연맹 관계자가 김진돈 씨를 보고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의 주치의의 맡는 것이 한의학과 더 일맥상통하지 않겠느냐며 권유했는데 이를 흔쾌히 받아

들었던 것. 그래서 96년 초 대학연맹 대회부터 지정닥터로 활동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대학연맹 대회 때는 빠짐없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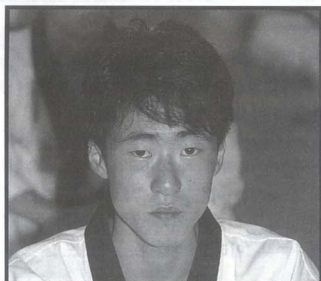
그는 “선수들이 경기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지정닥터가 응급치료를 해주긴 하지만 부상이 완쾌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수들이 시합이 끝나면 부상이 심하지 않을 때 그냥 방치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한다. 그럴 경우 재발의 여지가 많고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몇년간 지정닥터로 활동하면서 태권도 경기의 전문가가 다 된 그는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것은 완벽한 기술을 습득한 후 기술을 발휘하면 부상이 덜한데 미숙한 동작으로 경기에 나섰을 때 부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손보다는 발을 많이 쓰는 태권도 경기의 경우 손에 힘을 빼고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주먹을 꽉 쥐고 하는 경우 부상이 훨씬 덜하다고 충고한다.

그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 한 쪽을 저는 불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전혀 힘든 줄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해온 덕(합기도 5단)이라고 한다. 그 자신 운동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서 한방 치료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고 하는 그는 앞으로 대학연맹 뿐만 아니라 태권도 대표팀의 지정닥터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한다.

제 6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 프로필



민병석 (한체대)

■체급 : 핀급 **■생년월일 :** 78년 12월 8일
■신장 : 174cm **■체중 :** 58kg
■출신교 : (초,중,고,대) : 광희초-단대부중-단대부고
■주특기 : 빠른발, 뒤틀치기
■주요전적

'96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플라이 1
'97 협회장기전국남녀단체대항대회	-58kg 2
'97 전국체육대회	플라이 3
'97 전국남.녀우수선수권대회	플라이 2
'98 회장기전국대학대항대회	플라이 1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두통을 발휘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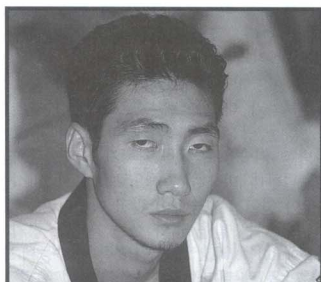


이광수 (한체대)

■체급 : 플라이급 **■생년월일 :** 78년 10월 1일
■신장 : 178cm **■체중 :** 60kg
■출신교 : (초,중,고,대) : 동자초-자양중-서울체고
■주특기 : 상단 발차기
■주요전적

'95 한국중고연맹회장기대회	플라이 1
'95 문화체육부장기전국남.녀중고대회	플라이 2
'96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최종평가전	페더 3
'96 대통령기전국대학대항대회	단체전 1
'98 회장기전국대학대항대회	밴텀 2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태극기를 들고 뛰는 만큼 우리나라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으로 싸우겠다.



김향수 (청주대)

■체급 : 밴텀급 **■생년월일 :** 78년 2월 4일
■신장 : 187cm **■체중 :** 64kg
■출신교 : (초,중,고,대) : 청주중-청주기계공고
■주특기 : 앞발얼굴돌려차기, 오른발비차기, 뒤엎차기
■주요전적

'93 전국남.녀우수선수권대회	플라이 2
'94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	플라이 3
'95 한국중고연맹회장기대회	밴텀 3
'95 전국체육대회	밴텀 3
'96 한국대표선수선발예선대회	밴텀 2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하겠다.



노현구 (한체대)

■체급 : 페더급 **■생년월일 :** 79년 1월 3일
■신장 : 183cm **■체중 :** 67kg
■출신교 : (초,중,고,대) : 성남북초-성남서중-동성고
■주특기 : 주먹, 내려차기, 뒤틀치기
■주요전적

'95 용인대총장기전국남.녀고교대회	단체전 1
'97 전국체육대회	페더 3
'98 한국대표선수선발예선대회	페더 3
'98 회장기전국대학대항대회	페더 1
'98 협회장기전국남녀단체대항대회	-68kg 1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대표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으므로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제 6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 프로필



이준희(용인대)

■ **체급** : 라이트급 ■ **생년월일** : 76년 6월 14일
 ■ **신장** : 186cm ■ **체중** : 73kg
 ■ **출신교** (초,중,고,대) : 용인초-태성중-태성고
 ■ **주특기** : 빠른발
 ■ **주요전적** '94 군월계영태권도경기 페더 1
 '95 이란혁명기념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 페더 1
 '97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 라이트 3
 '98 한국대표선수발예선대회 라이트 1
 '98 협회장기전국남녀단체대회 -80kg 1

■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최선을 다해서 꼭 1등하도록 노력하겠다.



장sun호(경희대)

■ **체급** : 웰터급 ■ **생년월일** : 78년 6월 16일
 ■ **신장** : 180cm ■ **체중** : 76kg
 ■ **출신교** (초,중,고,대) : 생문초-동성중-동성고
 ■ **주특기** : 윗차기, 왼발들러차기, 오른발찍기
 ■ **주요전적** '97 대통령기전국단체대회 단체전 1
 '97 회장기전국대학대회 미들 1
 '97 전국남녀우수선수권대회 미들 1
 '98 회장기전국대학대회 미들 3
 '98 대통령기전국단체대회 단체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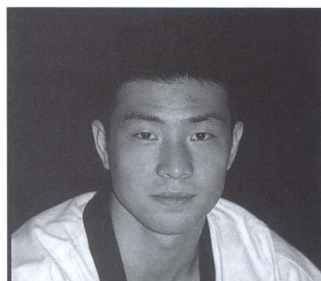
■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부모님, 선생님, 나에게 기대를 허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민우(동아대)

■ **체급** : 미들급 ■ **생년월일** : 76년 1월 21일
 ■ **신장** : 180cm ■ **체중** : 82kg
 ■ **출신교** (초,중,고,대) : 장림초-영남중-부산체고
 ■ **주특기** : 오른발·왼발나래차기, 왼발물여치기, 왼발윙차기
 ■ **주요전적** '96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미들 1
 '96 전국체육대회 미들 1
 '97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 미들 2
 '97 전국체육대회 미들 1
 '98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미들 1

■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뽀졌다.



문대성(동아대)

■ **체급** : 헤비급 ■ **생년월일** : 76년 9월 3일
 ■ **신장** : 190cm ■ **체중** : 89kg
 ■ **출신교** (초,중,고,대) : 구월초-구월중-리라공고
 ■ **주특기** : 왼발나래차기, 왼발윙차기, 얼굴공격
 ■ **주요전적** '96, 97 전국체육대회 헤비 1
 '98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 헤비 3
 '98 회장기전국대학대회 헤비 1
 '98 협회장기전국남녀단체대회 +80kg 1
 '98 대통령기전국단체대회 단체전 1

■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96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다.

제 6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 프로필



윤송희(한체대)

■체급 : 핀급 ■생년월일 : 77년 11월 24일
 ■신장 : 160cm ■체중 : 48kg
 ■출신교 (초,중,고,대) : 광장초-명성여중-성일상고
 ■주특기 : 오른발
 ■주요전적

'97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	플라이	2
'97 전국체육대회	플라이	3
'97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플라이	2
'98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	플라이	2
'98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플라이	3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부조한 면을 보완하고 상단에 주력 할 것이며 한국의 살아있는 투지를 보여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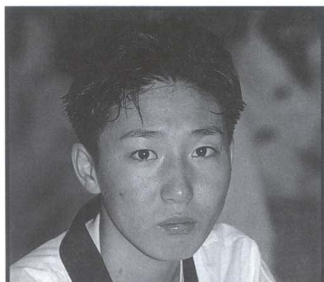


최유리(한체대)

■체급 : 플라이급 ■생년월일 : 80년 1월 13일
 ■신장 : 161cm ■체중 : 50kg
 ■출신교 (초,중,고,대) : 강덕초-아탑중-송곡고
 ■주특기 : 빠른발, 뒷차기
 ■주요전적

'97 전국종별선수권대회	플라이	1
'97 문화체육부장기전국남.녀중고대회	번틀	3
'97 연세대총장기전국남.녀고교단체대항대회	단체전	2
'97 전국체육대회	플라이	2
'98 한국대표선수선발예선대회	플라이	2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세계대회에 출전하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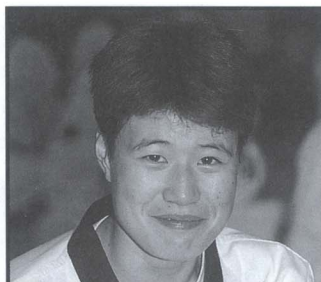


채혜경(경희대)

■체급 : 밴텀급 ■생년월일 : 79년 2월 16일
 ■신장 : 163cm ■체중 : 59kg
 ■출신교 (초,중,고,대) : 영복초-영북중-영북고
 ■주특기 : 받아차기
 ■주요전적

'97 한국대표선수선발예선대회	페더	3
'97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	페더	3
'97 회장기전국대학대항대회	페더	1
'97 국방부장관기단체대항대회	페더	2
'98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	페더	2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최선을 다하겠다.



강해은(상명대)

■체급 : 페더급 ■생년월일 : 77년 7월 9일
 ■신장 : 170cm ■체중 : 53.5kg
 ■출신교 (초,중,고,대) : 면중초-웅곡중-경성여자상고
 ■주특기 : 왼발뒷차기, 나래차기
 ■주요전적

'93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	라이트	2
'94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	3
'95 이집트국제태권도대회	라이트	1
'96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	2
'97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	1
'98 회장기전국대학대항대회	라이트	1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제 6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 프로필



김수현 (동아대)

■체급: 라이트급 **■생년월일:** 78년 9월 25일
■신장: 167cm **■체중:** 60kg
■출신교 (초,중,고,대): 동아대
■주특기: 오른발돌려차기, 왼발상단돌려차기, 뒷차기
■주요전적

'95 전국남.녀우수선수권대회	웰터	1
'96 한국고연맹회장기대회	웰터	1
'96 전국남.녀우수선수권대회	웰터	2
'97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	웰터	3
'98 회장기전국대학대학대회	웰터	1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



안근아 (한체대)

■체급: 웰터급 **■생년월일:** 77년 2월 7일
■신장: 170cm **■체중:** 63kg
■출신교 (초,중,고,대): 김제초-금성여중-김제북고
■주특기: 앞발
■주요전적

'95 전국대학개인대회	라이트	3
'95 국방부장관기단체대항대회	라이트	3
'97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	웰터	2
'97 전국체육대회	웰터	2
'98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	웰터	3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항상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



하민숙 (상명대)

■체급: 미들급 **■생년월일:** 78년 4월 7일
■신장: 173cm **■체중:** 63kg~67kg
■출신교 (초,중,고,대): 경성여실고
■주특기: 붙여차기, 앞발 받아차기
■주요전적

'96 경희대총장기전국남.녀고교대회	미들	2
'96 연세대총장기전국남.녀고교단체대항대회	단체전	3
'97 전국대학개인대회	미들	2
'97 전국남.녀우수선수권대회	미들	3
'98 회장기전국대학대학대회	미들	3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어렵게 얻은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신경현 (경희대)

■체급: 헤비급 **■생년월일:** 77년 12월 12일
■신장: 173cm **■체중:** 68kg
■출신교 (초,중,고,대): 금촌초-파주여중-문산중고
■주특기: 뒷차기, 오른발 받아차기, 빠른발
■주요전적

'96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	헤비	3
'97 전국대학개인대회	헤비	1
'97 전국체육대회	헤비	3
'97 전국남.녀우수선수권대회	헤비	1
'98 협회장기전국남.녀단체대항대회	+67kg	2

■"이렇게 싸우겠다." 나의 각오 : 최선을 다한 후 최고가 되었다.



남고부 밴텀급 결승에서 한성고 김대룡(오른쪽)이 만경고 유현석에게 뛰어 옆치기 공격을 하고 있다. 김대룡이 7-4로 판정승.

여고부 리라공고가 경성여실고 꺾고 우승

남중부는 팀창단 2년째인 신관중 패권장악

한국중고연맹은 지난 8월 9일부터 18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제 9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남중부 124개교 983명, 여중부

74개교 328명, 남고부 88개교 600명, 여고부 58개교 292명 등 총 344 개교에서 2,203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10일간 열전을 펼친 경기 결과 풍생고와 리라공고, 신관중과 대원여중이 남녀 고등부와 중등부 종합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풍생고는 박성규(핀급)와 박일(헤비급)이 금메달을 차지하고, 서정훈(플라이급)과 김선우(라이트급)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는 수훈에 힘입어 한성고와 동성고를 따돌리고 우승컵을 안았다. 반면 우승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체고는 윤원중(헤비급)이 2위에 그친 데다 다른 체급에서 입상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하는 부진을 보인 반면, 천안중앙고는 김기찬(페더급)이 금메달을 따내는 등 신흥 강팀으로 부상했다.

남고부 주요 경기내용을 보면, 밴텀급 결승에서 한성고 김대룡은 김제 만경고 유현석에게 원발 몸

통공격과 원발 내려차기를 성공시키며 7-4판정승. 다양한 기술발휘와 함께 뛰어난 경기감각을 겸비한 김대룡은 차세대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웰터급 결승에서 동성고 이남열은 문산중고 김원을 맞아 원발 몸통돌려차기를 공격하고 오른발 뒤차기로 받아차며 치열한 공방전 끝에 2-2 동점을 이루어 우세승으로 승리를 장식했다.

헤비급 결승전은 풍생고 박일과 서울체고 윤원중과의 명승부가 펼쳐졌다. 박일은 오른발 돌려차기를 주특기로 한 뛰어난 공격을 퍼부었고 윤원중은 뛰어난 경기감각으로 기회포착을 하며 득점을 올리는 접전 끝에 박일이 종료직전 오른발로 얼굴 돌려차기를 강타하며 5-3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고부는 리라공고의 압승으로 끝났다. 리라공고

는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는 박경은(밴텀급), 윤성희(페더급), 남보라(웰터급)의 금메달과 한진선(라이트급) 3위 입상에 힘입어 지난해 우승팀인 경성여실고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컵을 안았다. 경성여실고는 올해 금 1, 은 1, 동 2개를 따내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여고부 주요 경기를 보면, 페더급 결승은 리라공고 윤성희가 세계주니어 대표인 은광여고 장선영

펼쳤는데 신관중이 금 1, 은 2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배명중이 금 1, 은 1, 동 3개로 준우승을, 백양중이 금 1, 은 1개로 3위를 차지했다. 신관중학교는 96년도에 창단한 이후 불과 2년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신홍 강팀으로 떠올랐다.

또한 연향중, 부천동중, 태성중, 강화중, 서원중, 청주중, 백양중, 오현중, 중계중이 각각 금메달 한개씩을 따냈다.

김대룡(한성고) 차세대 유망주로 기대 모아 윤영희(리라공고)는 장선영(은광여고)에 판정승으로 설욕

에게 오른발 얼굴 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해 다운을 얻어내며 4-1 판정승을 거두며 대표 선발전에서 의 패배를 설욕했다.

라이트급 결승은 강화여중고 차세영이 서울체고 이인중에게 왼발 내려차기를 유효하게 공격 득점함으로써 6-4로 승리를 거두었다.

밴텀급 결승은 리라공고 박경은이 송곡여고 김경희에게 빠른 스텝을 이용해 왼발 몸통 돌려차기와 오른발 뒤차기 공격으로 4-2 판정승을 거두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웰터급 결승은 리라공고 남보라가 우수한 체력과 체격을 바탕으로 수내고 육지와과 점전 끝에 2-1로 승리를 거두었다.

남자 중등부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점전을

라이트급 결승에서 충북 서원중 김건섭은 부산 백양중 주영재를 맞아 왼발 내려차기와 오른발 뒷차기로 득점, 오른발 몸통 돌려차기로 맞선 주영재를 3-1로 제쳤다.

또 라이트 웰터급 결승에서 배명중 장창하는 의정부서중 김운호와 맞서 왼발 몸통 돌려차기와 오른발 뒤차기가 주효, 3-3 동점을 이뤘으나 우세승을 거뒀다.

라이트 미들급은 신관중 김준태가 천안중 이일제를 맞아 뛰어난 경기력으로 뒷차기, 받아차기 등 다양한 공격으로 득점을 올리는 압승으로 9-1 판정승. 김준태는 올해 소년체전에서든 우승한 데 이어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발되며 차세대 유망주로 떠올랐다.

여중부는 대원여중이 전이랑(밴텀급), 전소영(페

단체 성적

	남고부	여고부	남중부	여중부
우승	풍생고	리라공고	신관중	대원여중
준우승	한성고	경성여실고	배명중	만월중
3위	동성고	은광여고	백양중	본리여중
감투상	천안중앙고	고양여고	부천동중	부인중
장려상	군산고	정주고	고려중	소양중
우수선수상	박일	남보라	김준태	전소영
지도상	김정식	박영수	이해현	손병욱

문화관광부장관기대회

더급)이 금메달, 주민영(라이트급)이 동메달을 따내는 수훈에 힘입어 우승점을 가져갔다. 또한 만월중이 전미정(플라이급)이 금메달, 김명숙(미들급)이 은메달을 따내며 준우승을 차지했고 대구분리여중이 이성혜(라이트급) 금메달, 박미정(웰터급)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3위를 차지했다. 또한 만수여중, 동화중, 부인중, 곡선중, 평원중, 백양중, 용곡중학교가 각각 금메달 한개씩을 따내며 평균화된 기량을 보여주었다.

핀급은 대회 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주고 받는 기염을 토하며 흥미진진하게 진행된 결과 만수여중 김진란이 신산중 신여진을 10-9로 판정승을 거두었다.

라이트급 결승에서 대구분리여중 이성혜는 제주 신산중 한효진을 맞아 원발 돌려차기와 오른발 뒤차기를 효과적으로 구사, 2회전에서 RSC승을 거두었다.

미들급 결승에서 원주평원중 나은경은 인천 만월

중 김명숙을 맞아 원발 몸통 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리며 2-0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라이트 헤비급 결승에서 부산백양중의 심녕모는 대구신당여중의 서혜진을 맞아 원발 몸통 돌려차기와 오른발 뒤차기를 주고 받는 치열한 접전으로 3-3 동점을 이루었으나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끈 심녕모가 우세승을 거두었다.

헤비급 결승에서 용곡중의 장우진은 승부근성을 발휘하며 포항 흥해중의 박지혜를 맞아 뒷차기 공격을 성공시키며 2-1 판정승.

올해 남녀 최우수선수상은 신관중의 김준태(라이트 미들급 1위), 대원여중의 전소영(페더급 1위), 풍생고의 박일(헤비급 1위), 리라공고의 남보라(웰터급 1위)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한편 뛰어난 지도력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끈 김정식(풍생고), 박영수(리라공고), 이해현(신관중), 손병욱(대원여중) 코치는 각각 지도상을 수상했다.

부별 최우수선수상 수상자 인터뷰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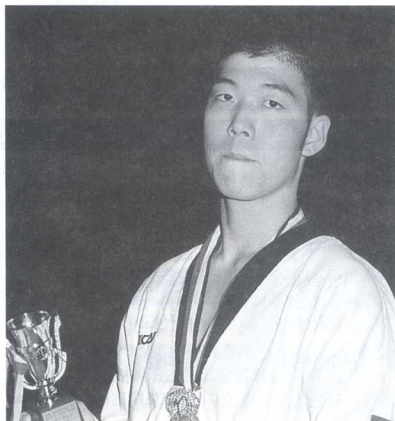
남고부 헤비급 박일 (풍생고 3학년)

야간에 공동묘지에서 담력과 정신력 훈련 고 1때 턱뼈 부상 극복 - 의지력과 인내심 돋보여

동계훈련기간 중 1주일 동안 야간에 공동묘지에서 담력과 정신력 훈련을 받은 풍생고등학교의 박일이 이번 대회에서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과 뛰어난 기술 발휘로 헤비급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 우승을 위하여 우리 학교 선수들 모두 피눈물나는 훈련을 했는데 저만 이 상을 받게 되어 미안하고 이 영광을 우리 팀 모두에게 돌리고 싶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수상소감을 밝히는 박일은 고 1때 턱뼈가 부러져 6개월 이상 밥을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해 온 의지력과 인내심이 돋보이는 선수이다.

비교적 늦은 중 2때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박길용 관장에게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박일은 연속 발차기 후 결정타가 특기로 지난해 이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후 이번에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신장도 크고 빠른발을 잘 쓰는 부산체고의 김경환을 대비해 철저히 장단점을 분석하고 대비한 것이 이번 대회 우승의 발판이 되었다는 박일, 강선장 감독은 “아무리 힘든 훈련도 포기

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의지력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의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고 칭찬하며 그의 인내력과 노력이면 반드시 국가대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인터뷰

여고부 윌터급 남보라 (리라공고 3학년)

상대팀 주요 선수들 비디오보며 철저분석 유연성과 발기술 뛰어나 - 경기전 너무 긴장하는 것이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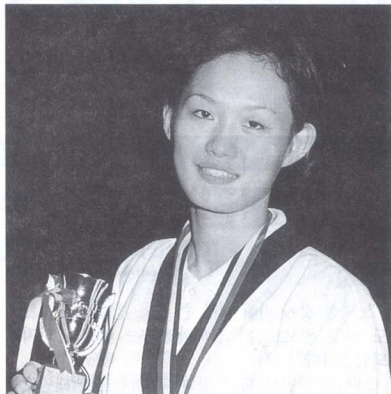
“준결에서 송곡고 이정민과 싸울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상대의 왼발 빠른발을 오른발 뒷차기로 대응하는 전술을 썼는데 이것이 적중해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어렵게 결승에 오른 탓인지 수내고 육지은과의 결승전은 쉽게 경기가 풀렸다. 오른발 받아차기, 왼발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화려한 기술을 발휘하는 가운데 금메달을 목에 건 남보라.

남보라는 지난 7월 경희대총장기대회의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3학년 졸업반으로서 마지막 대회를 화려하게 장식했는데 그동안 상대팀의 주요 선수들에 대해 비디오를 보면서 철저 분석해 대비한 것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경기를 앞두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남보라는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이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버릇이 있다. “넌 최고다. 자신감을 갖고 게임에 최선을 다하자”고.

남양을 지도한 유수철 감독은 “유연성과 다양한 발기술을 갖춘 대표급 선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경기전에 너무 긴장해 제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흠”이라고 지적했다.



남보라는 자신감과 파워가 넘치는 조항미를 좋아하며 조선수의 배짱과 승부근성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국가대표에 도전해 보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되었다는 남보라의 내년도 활약을 기대해 본다.

인터뷰

남중부 라이트 미들급 김준태 (신관중 3학년)

“항상 겸손하며 노력하는 선수 되고파” 지난 5월 소년체전서도 우승 - 차세대 유망주

“그동안 저에게 항상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면서 지도해주신 이해현 코치선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동료 선수들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이번 대회에서 라이트 미들급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김준태의 수상소감이다. 김준태는 중별선수권대회에서 라이트 미들급 3위를 차지



한데 이어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 웰터급 1위를 차지하는 등 남다른 기량을 보여왔다.

이번 대회 최대 난적으로 곡선중학교 김동성을 꺾은 김군은 코치선생님이 지시하는 기술의 사용이 승리의 열쇠가 되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흥체육관 김정일 관장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김준태는 뒷차기가 일품이며 경기에 자신감을 갖고 계임을 풀어나가는 운영능력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항상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를 장점으로 꼽는 이해현 코치의 말대로 앞으로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이 엿보이는 선수이다. 함께 운동을 하면서 힘들 때면 앞에서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면서 많은 힘이 되어준 인제진, 이광진 선배를 좋아하는 김준태는 항상 겸손하며 노력하는 선수가 되어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인터뷰

여중부 페더급 전소영 (대원여중 3학년)

태권도 2년 수련의 짧은 경력 뛰어난 순발력에 비해 노련미 부족이 흠

“노력한 것에 비해 너무 큰 상을 받게되어 기쁘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때 학교 방과 후 활동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다 손병욱 코치의 눈에 띄어 태권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전소영은 지난 5월 제 25회 중고연맹회장기대회 밴텀급 2위에 이어 이번 문화관광부장관기대회 페더급 1위를 차지함으로써 차세대 기대주로 떠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역삼중학교 정혜리를 가장 힘들었던 상대로 꼽은 전소영은 뒷발차기를 조심하며 주특기인 상단 공격과 나래차기로 대처함으로써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경기전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리를 떠는 버릇이 있다는 전소영은 대원여중 선배 중 수내고등학교 조선미의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고 싶다고 한다.

뛰어난 순발력과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을 가진 반면 짧은 경력으로 인한 노련미의 부족을 끊임없는 반복훈련으로 극복하겠다는 전소영은 고등학교 때 태극마크를 달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보였다.

대원여중의 김현국 감독은 전소영이 뛰어난 경기 감각을 갖고 있는 데다 성실한 노력형이며, 목표를 정하면 꼭 이루고야 마는 승부근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 체력훈련과 기술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국가대표로 성장할 재목이라고 기대했다.



입상자명단

		남고부		여고부		남중부		여중부	
체급	순위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핀급	1	박성규	풍생고	김지현	은광여고	오원선	연향중	김진란	만수여중
	2	노형상	오성고	이은주	심원고	이홍기	신성중	신여진	신사중
	3	김두현	부평기고	김현미	고창여고	임광열	곡선중	사영주	조치원여중
플라이급	1	유정욱	단대부고	박효주	서울체고	김광훈	공주중	김수양	이천영평여중
	2	허현	강원체고	오정길	덕암고	장원상	부천동중	전미정	만월중
	3	김영석	동천고	이인혜	경성여실	장삼열	구월중	고은진	인천부흥중
밴텀급	1	서정훈	풍생고	박영희	금정여고	전승환	인천산곡남중	박은영	연수중
	2	윤상호	선인고	이지혜	서울체고	이민호	천안북중	윤혜정	남산중
	3	김대룡	한성고	박경은	리라공고	조영식	태성중	전이랑	대원여중
페더급	1	유현석	만경고	김경희	송곡여고	이승룡	양지중	정재영	대전체육중
	2	양창일	남녕고	김미정	문산중고	차범규	고덕중	최미현	원일중
	3	안광석	경남체고	전남수	경성여실	박종현	경수중	이소영	덕정중
라이트급	1	김기찬	천안중앙	윤성희	리라공고	구정훈	강화중	전소영	대원여중
	2	최승호	순천공고	장선영	은광여고	안태진	관교중	정혜리	역삼중
	3	최삼묵	부평기고	이지미	고양중고	조현웅	구암중	이유화	부인중
L-웰터급	1	선영준	문성고	박주희	홍해공고	이상수	신안중	박미슬	백마중
	2	진우승	부산체고	차세영	강화여고	김건섭	서원중	이성혜	분리여중
	3	최원석	송곡고	이인중	서울체고	주영재	백양중	한효진	신산중
웰터급	1	조승현	부평기고	한진선	리라공고	고성현	신산중	주민영	대원여중
	2	김선우	풍생고	함상우	심원고	최선호	배명중	김지현	연수중
	3					장창하	배명중	황경애	동화중
L-미들급	1					김윤호	의정부서중	양지은	신관중
	2					권순봉	분리중	강지나	법성중
	3					박승훈	동화중	김지혜	근명여중
미들급	1	이납열	동성고	남보라	리라공고	유재형	청주중	이종민	부인중
	2	김원	문산중고	육지은	수내고	손동준	인양부흥중	김승희	웅남중
	3	이규민	천안농고	이정민	송곡여고	김진걸	배명중	김연희	인천부흥중
L-헤비급	1	김태정	만경고	김연지	서울체고	신언철	공주중	박미정	분리여중
	2					김준태	신관중	조현아	곡선중
	3					이일제	천안중	최진미	오금중
헤비급	1					김길성	경수중	김미화	인천부흥중
	2					조찬영	배명중	김수옥	부산동여중
	3					이정훈	백양중	나은경	평원중
L-헤비급	1	이덕휘	부천정산	장성연	경성여실	김기호	신관중	김명숙	만월중
	2	정영한	동천고	김부용	금정여고	김성환	오성중	양정진	시흥중
	3	임재규	협성고	김미란	고양중고	김영준	부천동중	심지희	근명여중
헤비급	1	노진영	선인고	양달복	관악정산	장두상	오현중	심병모	백양중
	2					안준우	배명중	서해진	신당여중
	3					정지원	성남서중	박지현	흥해중
헤비급	1	박일	풍생고	권혜영	고양중고	이규진	산곡남중	이수경	신관중
	2	윤원중	서울체고	윤현숙	송곡여고	박준혁	중계중	장유진	웅곡중
	3	최광택	선인고	임희수	이천양정	강수현	신관중	박지혜	흥해중
헤비급	1	박용수	인천체고	한현아	경성여실	최동민	경서중	변윤정	분리여중
	2					이영희	부흥중	조미영	화수중
	3								

건군 50주년기념 제 7회 국방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민, 군 화합을 위한 대향연에 480여명 참가



건군 50주년 기념 제 7회 국방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가 9월 8일 오전 10시 국군체육부대에서 천용택 국방부장관과 김운용 IOC 집행위원 겸 대한체육회장, 전수신 대한태권도협

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군관계 및 체육계 인사와 일반, 군 대표 등 56개팀에서 남녀선수 4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됐다.

삼성물산, 한체대, 해병대 우승

개막식후 공개행사로는 용인대 태권도 시범단과 특전사요원들의 태권도 시범, 경기도립무용단의 부채춤과 농악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민, 군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태권도 저변확대는 물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대비해 국방부가 92년도에 창설한 이 대회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가운데 남자부, 여자부, 군팀 등 3개 부문별로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경기결과 종합우승은 삼성물산(남자부), 한체대(여자부), 해병대(군대항)가 각각 차지했으며 최우수선수상은 유용진(삼성물산), 이선영(한체대), 안홍엽(해병대)이 차지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7월 실업팀 창단 후 처음으로 대통령기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로

최강팀의 면모를 자랑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김병태(핀급), 유용진(페더급)의 활약에 힘입어 남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무명 김홍일, 진승태 놀라

한편 이번대회에서는 각종 이번이 속출했다.

남자부 이틀째 경기에서는 상무의 김홍일이 93, 95, 9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진승태(한국가스공사)를 꺾는 이번이 일어났다. 9일 벌어진 남자 일반부 플라이급 2회전에서 김홍일은 주특기인 앞발 빠른 공격과 들어찍기를 이용해 돌려차기로 응수한 진승태를 몰아붙여 1-1 동점 끝에 적극적인 공격으로 우세승을 따내며 파란을 일으킨 후 이 체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부 내년 판도변화 예고

진승태를 비롯해 삼성물산의 최만용(플라이급), 경희대 이두건(페더급), 동아대 김민우(미들급) 등 올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대거 탈락함으로써 99년도 태권도 판도의 재편을 예고했다.

최만용은 8강에서 한체대의 민병석과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3-3 동점끝에 적극적인 공격으로 도전해온 민병석에게 우세승을 내주며 탈락했다.

민병석은 체격조건이 우수한데다 침착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원발돌려차기와 뒷차기를 주특기로 지난 8월 대학연맹개인대회에서 우승과 함께 11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6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의 국가대표로 파견되는 유망주.

한편 삼성물산의 유용진은 페더급 결승에서 용인대의 정구욱을 맞아 오른발과 왼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기술발차기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 무려 10-1이라는 높은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고 남자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5월 독일에서 열린 월드컵대회에서 미들급 우승을 차지한 동아대의 김민우는 8강에서 신에 김형철에게 4-3으로 판정패함으로써 탈락하는 이번을 낳았다. 김형철은 4강에서 용인대 이영우에게 4-2로

패배, 동메달을 차지했다.

미들급 결승전은 경희대 박천덕과 용인대 이영우의 대결로 1회 초반부터 득점을 주고 받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박진감 넘친 경기를 펼쳐 결국 12-10으로 박천덕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자부 한체대 4체급 휩쓸어

여자부에서는 한체대가 이선영(핀급), 박정희(플라이급), 정재은(페더급), 장지원(라이트급)의 활약에 힘입어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지난해 우승팀인 경희대는 정진영(웰터급), 박은희(미들급), 신경현(헤비급)이 금메달을 따내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체대의 이선영은 핀급 결승에서 경희대의 전성아를 맞아 10cm나 큰 키를 이용해 원발 뒷차기, 돌려차기 등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며 3-2로 승리, 이 대회에서 3연패를 차지하며 올해 여자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경희대의 정진영은 웰터급 결승에서 춘천시청의 신은정을 맞아 오른발 받아차기로 첫 득점을 올린후 연속해 원발 뒷차기, 돌려차기 등 뛰어난 공격으로 1회 3득점, 2회 6득점을 올리며 9-0으로 2회말 RSC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하며 우승했다. 정진영은 지난해 국방부장관기대회에 이어 올해도 우승함으로써 2연패를 기록했다.

패기의 군 대항부 패권은 해병대로

한편 국방부장관기태권도대회의 특징이기도 한 군 대항부에는 육군 4개팀, 해군 2개팀, 공군 1개팀 등 모두 7개팀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 결과 해병대가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군 응원단은 각군별 경기가 있을 때마다 저마다 준비한 응원가와 응원도구로 조직적인 응원을 함으로써 군 장병들의 함성과 패기로 경기장을 열기로 가득채웠다.

해병대는 전현우(페더급), 김정호(라이트급), 안홍엽(웰터급), 황동환(미들급)이 금메달을 휩쓸며 최강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태권도선수 3명을 군장교로 특채, 태권도 활성화를 꾀해온 공군은 고동완(플라

국방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이급)과 빙원철(해비급)이 금메달, 지진성이 동메달을 따내며 모두 입상하는 쾌거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고동완은 플라이급에 출전, 앞발과 뒷차기로 얼굴과 몸통을 공격하는 기술을 발휘하며 예선에서 2군의 정해창을 5-2, 3군의 강성일을 4-3으로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 1군 사령부의 김진성과 경합을 벌였다. 고동완은 김진성의 오른발 돌려차기 공격과 상단공격을 받아차며 득점을 허용하지 않는

노련한 경기를 펼치다 뒷차기로 상단 공격을 적중시키며 1-0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웰터급 결승에서 해병대의 안홍엽은 육군적할부대의 장우화를 맞아 뒷차기와 나래차기로 공격하며 득점을 올렸고 장우화도 주먹 공격과 원발 받아차기로 응수하며 2-2동점을 이루는 접전 끝에 적국적인 공격을 펼친 안홍엽에게 우세승이 돌아갔다.

안홍엽은 96, 97년도 국방부장관기대회 우승에 이어 올해에도 우승함으로써 대회 3연패를 기록했다.

화제의
인물

“운동량 많아 자신있었습니다”

김홍일,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의 진승태 꺾고 승승장구

제 7회 국방부장관기대회에서 김홍일(상무)이 '93, '95, '97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진승태(한국가스공사)를 꺾는 최대 이벤트를 일으켜 화제를 모았다.

9일 국군체육부대에서 벌어진 남자일반부 플라이급 2차 예선에서 무명의 김홍일은 주특기인 앞발 빠른 공격과 들어찍기를 이용해 돌려차기로 응수한 진승태를 몰아붙여 동점 끝에 우세승을 따냈다.

한국의 간판스타를 이긴 탓인지 다음날 열린 준결과 결승에서 김홍일은 자신있게 정진영(경희대)과 민병석(한체대)을 차례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냈다.

김홍일은 “군인인데다 국방부장관기대회이기 때문에 오직 해야된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경기 두달전부터 하루 8시간씩 강도높은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번 승리의 요인을 「군인정신」과 「많은 운동량」이라고 말한 김홍일은 대진표를 받아들었을 때 진승태만 이기면 이번 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치밀한 분석끝에 빠르고 노련한 진승태가 접근전을 펼치며 득점을 얻는 스타일에 대응하기 위해 받아차기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결국 진승태가 접근전으로 들어올 때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자신있게 받아차며 역습을 강행한다는 전략이 주효했다.

김홍일은 그동안 자신의 가장 큰 단점으로 받아차기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받아차기로 진승태를 물리쳐 징크스를 깨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기뻐했다.

내년 2월 재대를 앞두고 있는 김홍일은 앞으로 실업팀에 입단해 계속 선수생활을 할 예정인데 국가대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이다.

선수생활 후 태권도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태권도 강국인 스페인을 염두에 두고 매일 1, 2시간씩 스페인어를 공부해온 그의 회화실력도 수준급.



단체종합

군

1위 해병대 사령부

2위 공군

3위 1군 사령부

남자부

1위 삼성물산

2위 용인대

3위 경희대

여자부

1위 한체대

2위 경희대

3위 삼성물산

국방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입상자 명단

단체상

남자부 삼성물산

여자부 한체대

군선수단 해병

우수선수

남자부 유용진(삼성물산)

여자부 이송국(한체대)

군팀 안홍엽(해병)

우수지도자

남자부 김세혁(삼성물산)

여자부 이선영(한체대)

군팀 맹성재(해병)

군격파

우승 해군

준우승 3군 사령부

여자부

핀급 1위 이선영 한체대
2위 전성아 경희대
3위 윤현미 강원대
김수연 용인대

플라이 1위 박정희 한체대
2위 박효진 용인대
3위 윤희순 용인대
최미애 삼성물산

밴텀 1위 원선진 삼성물산
2위 주혜원 한체대
3위 김병희 용인대
최유리 한체대

페더 1위 정재은 한체대
2위 정미나 삼성물산
3위 김정은 강원대
경희대

라이트 1위 장지원 한체대
2위 이정숙 용인대
3위 이혜경 한체대
신현순 용인대

웰터 1위 정진영 경희대
2위 신은정 춘천시청
3위 신세연 용인대
한아름 목원대

미들 1위 박은희 경희대
2위 윤현정 용인대
3위 서영하 용인대
이옥미 성신여대

헤비 1위 신경현 경희대
2위 박정순 김제시청
3위 주경현 인천천문

남자부

핀급 1위 김병태 삼성물산
2위 김충성 경희대
3위 정주웅 경상대
김기중 해군

플라이 1위 김홍일 상무
2위 민병석 한체대
3위 정진성 경희대
김현수 성균관대

밴텀 1위 문정훈 동아대
2위 이기철 경희대
3위 장원모 경희대
이동연 경희대

페더 1위 유용진 삼성물산
2위 정구욱 용인대
3위 고대후 상무
노현구 한체대

라이트 1위 이준희 용인대
2위 김대훈 동아대
3위 김재우 한체대
하태호 한체대

웰터 1위 조원철 한체대
2위 최봉준 용인대
3위 이광석 경희대
정재균 춘천시청

미들 1위 박천덕 경희대
2위 이영우 용인대
3위 김형철 경남대
이동환 춘천시청

헤비 1위 김광수 춘천시청
2위 김정규 가스공사
3위 문대성 동아대
이재성 성균관대

군

핀급 1위 정재필 해군
2위 김태형 3군
3위 이태훈 육군직할
지진성 공군

플라이 1위 고동환 공군
2위 김진성 1군
3위 강성일 3군
박진천 해군

밴텀 1위 윤정환 1군
2위 최재훈 3군
3위 현주인 2군
박재형 해군

페더 1위 전현우 해병
2위 형성호 해군
3위 김영수 3군
이동규 1군

라이트 1위 김정호 해병
2위 위현서 육군직할
3위 배성기 2군
최정원 1군

웰터 1위 안홍엽 해병
2위 장우화 육군직할
3위 박영선 1군
김실용 해군

미들 1위 활동환 해병
2위 정재광 공군
3위 목재균 1군
정병민 3군

헤비 1위 병원철 공군
2위 송민 1군
3위 김상국 해군
노태일 2군

제 21회 연세대충장기 전국남녀고교단체대항태권도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리라공고 박경은(오른쪽)이 고양중고 이차미를 원발췌기로 공격하고 있다. 리라공고가 3:1로 승리.

동성고 모두 6번째 우승 위업 달성

리라공고 4연패 - 여고부 최강 자랑

연 세대충장기대회가 지난 8월 25일과 26일 이틀동안 연세대 체육관에서 전국 남녀 고교 49개팀에서 245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5인 단체전으로 펼쳐져 박진감 넘친 경기가 펼쳐진 이번 대회 남고부 경기결과 동성고는 모두 6번째 우승을 달성하는 한편 여고부는 리라공고가 대회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국내 여고부 최강팀임을 과시했다.

동성고는 지난 26일 연세대 체육관에서 벌어진 이 대회 결승전에서 이남열, 유덕수, 유승강, 송기윤, 오현근 등 3학년 주전선수들을 기용, 막강한 전

력을 과시하며 첫 경기서 송곡고를 3-1로 누른 이후 한성고를 3-0, 태성고를 3-0, 개금고를 3-0으로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풍성고를 3-0으로 이기는 등 결승전까지 4차례 전 경기를 3-0으로 상대팀을 일방적으로 완파하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동성고의 이남열은 체력과 체격이 우수한 데다 다양한 발차기로 상대방을 이기는 발군의 기량을 과시하며 상대선수를 제압함으로써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였다.

서정훈, 박인수, 허구찌 등 3학년 3명과 설승룡, 변상용 등 2학년 2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출전한 풍성고등학교는 첫 경기서 단국공고를 맞아 3-0으로 가

별게 이긴 뒤 16강에 진출, 선인고를 맞이해 승리를 주고 받는 치열한 접전 끝에 3-2로 힘겹게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올랐다.

풍생고는 8강에서 충남체고를 역시 3-2로 누르며 준결에 진출, 부평기술고를 3-0으로 완파한 뒤 결승에 진출했으나 리라공고에 3-0으로 패함으로써 정상 문턱에서 좌절했다.

남자 최우수선수상 동성고의 이남열 여자 최우수선수상 리라공고의 박 경 은

한편 지난 5월 협회장기대회와 7월 대통령기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최강팀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했던 서울체고는 1차 예선에서 분당고를 맞아 3-2로 고전 끝에 16강에 진출했으나 개금고에 3-2로 패하고 탈락하는 이변을 보였다.

한편 여고부 경기에서는 오정희, 심혜영, 박경은, 윤성희, 남보라의 활약에 힘입어 리라공고가 결승



▲여자 최우수선수상 박경은(리라공고).

에서 고양중고를 3-1로 따돌리고 대회 4연패의 위업을 달성,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국내 여고부 최강팀임을 다시한번 과시했다.

리라공고는 1차 예선에서 충남체고를 맞아 3-1로 이기고 8강에 진출, 관악정보산업고를 역시 3-0으로 가볍게 이기고 준결에 진출했다. 준결에서는 박효주, 양선희, 이지혜, 이인종 등 1학년들을 주축으로 한 서울체고를 맞아 3-2로 치열한 접전 끝에 힘겹게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이자미, 김윤미, 권민지, 김미란, 권혜영 등이 활약한 고양중고는 준결에서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며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오른 경성여실고를 3-1로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리라공고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했다.

이로써 남고부는 동성고가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풍생고가 2위, 개금고와 부평기술고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여고부에서는 리라공고가 종합우승, 고양중고가 준우승, 경성여실고와 서울체고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남녀 최우수선수로는 동성고 이남열과 리라공고 박경은이 뽑혔으며 우수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동성고의 이완희 코치와 리라공고 박영수 코치는 지도상을 수상했다.



▲남자 최우수선수상 이남열(동성고).

대회입상내역

부 문		남 고 부	여 고 부
단 체	1위	동성고등학교	리라공업고등학교
	2위	풍생고등학교	고양종합고등학교
	3위	개금고등학교	경성여자실업고등학교
		부평기술고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
	갑투상	충남체육고등학교	가정고등학교
	장려상	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
개 인	최우수선수상	동성고등학교 이남열	리라공업고등학교 박경은
	지도상	동성고등학교 이완희	리라공업고등학교 박영수

학제의 팀 - 리라공고 태권도부

올해 주요대회 여고부 싹쓸이 중고연맹회장기, 문화관광부장관기, 연세대총장기 우승

리라공고가 올해 5월 중고연맹회장기대회 여고부 우승을 시작으로 제 9회 문화관광부장관기와 제 21회 연세대총장기까지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여고부 최강팀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했다.

리라공고 태권도부의 사령탑 유수철 감독은 선수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행운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강조하며 지도했는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평소 훈련은 몇시간 정도 시키고 있는지,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 있다면?

▲ 새벽에 1시간 30분 정도 체력훈련을 실시하고, 오후에 2시간 30분 정도 기술훈련과 정신력 훈련 등 하루에 4시간 정도 매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갖고 해내고야 말겠다는 투지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신력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신력 강화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리라공고 재학생 중에는 대학생이나 실업팀 선수 못지 않은 기술을 발휘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선수들의 기술훈련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기본기가 충실해야만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초기술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전문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대회를 앞두고는 비디오를 통해 상대팀 선수들의 경기력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전술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마친 후에도 반드시 경기를 점검하고 승패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다음 훈련 프로그램 짜게 됩니다.

-체력 훈련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합니까?

▲ 체력훈련을 위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남산에서 주로 뛰고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수들이 특히 체력이 강한 것은 남산에서 강도 높은 체력훈련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텐데 주로 어떻게 긴장을 풀도록 유도하십니까?

▲ 긴장을 푸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 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거나, 다리를 떠다니다가, 음악을 듣거나, 큰소리로 기합을 지르며 설새같이 연습에 몰두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합을 앞둔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꼭 이겨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니 승패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각오로 뛰어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농담으로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편입니다.

- 리라공고에서 배출한 전, 현 국가대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현재 당곡중학교 코치로 활약하고 있는 유수미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대회 4연패의 위업을 이룬 리라공고팀. 앞줄 왼쪽이 박영수 코치와 유수미 감독. 뒷줄 왼쪽부터 오정희, 윤성희, 남보라, 심혜영, 박경은.

를 비롯해 권지희(고려대), 안용준(성균관대), 문대성(동아대), 이지은(경희대), 황병현(성균관대), 신동선(인천시청)이 우리 학교 출신이고 재학생 중에는 오정희, 심혜영, 박경은, 한진선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남고부 입상내역

단체 1위 (동성고등학교)

선수명	학년
이남열	3
유덕수	3
유승강	3
송기윤	3
오현근	3

단체 2위 (동성고등학교)

선수명	학년
서정훈	3
박인수	3
히구찌	3
설승룡	2
변상용	2

단체 3위 (개금고등학교)

선수명	학년
박충일	3
김광은	3
박지훈	3
한지훈	2
강동우	2

단체 3위 (부령기술고등학교)

선수명	학년
이승현	3
조승현	3
최상욱	3
김도영	2
김두현	3

여고부 입상내역

단체 1위 (리라공업고등학교)

선수명	학년
박경은	3
윤성희	2
남보라	3
오정희	3
심혜영	3

단체 2위 (고양종합고등학교)

선수명	학년
이자미	3
김윤미	3
권민지	3
김미란	1
권혜영	2

단체 3위 (정성여자실업고등학교)

선수명	학년
이인혜	1
송윤희	1
홍영재	3
이윤진	3
한현아	2

단체 3위 (서울체육고등학교)

선수명	학년
박효주	1
양선희	1
이지혜	1
이인종	1
김연희	2

태권도
동아리 탐방

10

한양대학교
태권도부

자부심과 긍지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젊음들



우리는 태권도 한가족
올봄 체육대회를 마치고 노천극장에 함께 모인 태권도 부원들.

2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 캠퍼스 교정은 젊음의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하다. 곳곳에 걸린 강좌 플랭카드, 농구대 밑을 떠날 줄 모르는 남학생들, 화장기 없는 풋풋한 얼굴로 밝게 웃는 여학생들...

방학동안 농촌봉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겹쳐 그들은 얼굴로 캠퍼스 곳곳을 오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최악의 실업난으로 위축된 대학가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보는 듯 했다. 오늘의 어려운 현실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지성들이 있는 곳. 이 중에서도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패기 넘치는 태권인들을 찾아 한양대학교 태권도 동아리를 방문했다.

마침 동아리방에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송영호(93학번·원자력공학과)를 비롯해 일곱명의 부원이 운동 후 동아리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부장인 황성식(93학번·토목공학과)과 동기인 권희락(원자력공학과), 92학번 최진호(물리학과), 94학번 윤상원(기계공학과), 97학번 장재원(경영학부), 98학번 임중택(전자전기공학부) 등 자리를 함께 한 부원들은 태권도 부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가득 담은 목소리로 한양대학교 태권도부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줬다.

올해 여름 종합체육관에 있는 태권도장을 개보수해 태권도 동아리 중에서는 명실공히 대학 최고 규모의 훈련장으로 만들었다는 이들의 설명에서, 현

재 한양대 체대 교수로 재직중인 영향력 있는(?) 선배들에 대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다.

태권도부는?

98년 현재 37기의 기수가 조직되어 있고 태권도부라는 이름 이전에도 '공수부'라는 명칭으로 태권도부가 존재했었다고 하니 한양대학교 태권도 동아리의 전통은 그 역사가 꽤 깊다 하겠다.

현재 활동중인 재학생 부원은 40여명. 아무래도 남학생의 비율이 높은 한양대이니 만큼 여학생 부원이 많기를 기대하는 것은無理겠지만 98학번, 99학번에 한 명씩 모두 두 명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좀 의외였다. 허나 양보다는 질로 승부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더욱 열심히 수련에 매진하는 여성부원들의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아 분발하게 된다는 부원들의 설명을 들으니 안심되었다.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전



▲장발이 멋이었던 시절

81년, 20기 선배들의 수련모습. 장발의 선배들 모습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지만 그 표정은 진지하다.

체 운동을 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매년 건국대 태권도부와 '한건전'을 열어왔는데 근래는 경원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도 동참해 친선대회를 열고 있다고 한다.

졸업생 모임 '한권회'

'한권회'는 태권도부 졸업생들의 모임. 공대출신의 강태권 선배가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전기전자신문의 운영자이기도 한 그는 치악산에 캠프를 만들어 놓고 태권도 부원들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짜서 후배들을 지도할 정도로 열성적이라고.

올해로 제 3기째를 맞는 '신입생 극기훈련'은 '회생과 봉사정신'을 부원의 원칙으로 해서 정신훈련, 극기훈련, 계곡탐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그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된 것이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도 크다는 것.

여름방학때면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모여 수련도 하고 친목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된다. 학교를 졸업한 지가 가까워진 선배들은 가족들과 함께 후배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태권도 수련의 선배로, 또 인생의 선배로서



말레이시아 유학생의 연무
전사로 학생회관 앞에서 연무 시범을 보이고
있는 부원들. 공중타기를 하고 있는 부원은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온 공대생 이진.

한양대 태권도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만남의 자리를 통해 다져진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은 태권도 부원들을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또한 어려운 때지만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고 한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한다

연초 신입생 모집 때는 신입부원이 20명이 넘었는데 하계 수련회를 마치자 현재 4명이 남았다.

강도가 높은 훈련 때문이라 생각하면서도 복학생 선배들은 몇년새 자신들이 동아리 활동할 때와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며 씁쓸해 한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어렵고 힘든 것은 피하러는 쪽으로 가고 있고,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정신이 존재하는 대학가에도 졸업후의 진로를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위기감이 팽배해 가면서 컴퓨터나 영어 등 취입에 당장 도움이 되는 일부 동아리들만이 환영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자신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갈고 다듬는 수련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부원들은 입을 모은다.

자기의 한계를 시험하는 수련을 반복함으로써 자



▲이런 운동도 한다.

86년 겨울, 캠퍼스에서 다리 근력을 기르기 위해 수련(?)중인 부원들의 모습. 기운찬 호령이 들리는 듯하다.

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에 보다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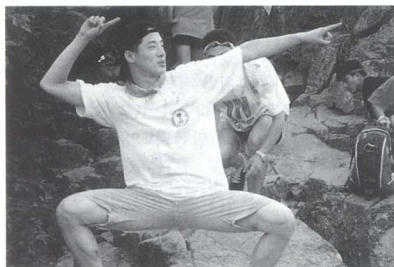
태권도 수련에 대한 부원들의 이런 나름대로의 확고한 믿음 때문에, 온갖 훈련을 거치며 '살아남은' 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자부심과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태권도부의 진면목

진지한 표정으로 수련의 목적과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던 부원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달라는 주문이 떨어지자마자 마자 앞다투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줬다. 남녀학생의 성비(性比)가 뒤집힌 적이 있었던 때, '막강파워'로 유명했던 93학번 여학생들에 얹힌 비화(?)중 하나.

남학생의 입에 담배를 물리고 발차기를 해보겠다고 멋지게 품을 잠든 한 여학생. 울며 겨자먹기로 붙잡힌 남학생의 이마에선 식은 땀이 흐르고... 결국 그 남학생은 무시무시한 여학생의 헛발질에 턱을 맞고 땅바닥에 붙어버렸다! 이런 예는 부지기수다. 생일잔치 때 케이크를 얼굴에 문지르는 나쁜(?)



▲이거 정말 수련자세야?

지난해 여름수련회에서 별난 자세로 수련에 열중(?)하고 있는 96학번 김정진.

습성을 타파해야 한다던 한 여학생은 이를 시도하려는 한 남학생의 팔을 꺾어 전치? 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고, 순간적 괴력으로 70kg이 넘는 거구의 남학생 두 명을 모래판에 매친 여학생도 있었다. (고생스러웠던 그 때를 회상하는 복학생 부원들의 얼굴에는 그리움 어린 쓴 웃음이...)

무서운 선배들은 어떻게... 처음 태권도부에 들어와서 첫 훈련 하는 날, 함께 도장을 달리다 압편을 밝은 93학번 권희락(당시 1학년).

뿔어져 나오는 피를 망연히 보고 있다가 선배에게 압편을 밟았다고 말하자 그 선배 무표정하게 하는 말, '응? 그럼 버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두가 다시 뛰었다는 이야기. 참으로 무서운(?) 세월이었다고.

그런 기억만 있는 건 아니다. 집에는 과 MT 간다고 말하고는 준비한 코렐과 버너로 태권도 동아리방에서 밥해먹고 놀았던 일, 올봄 MT를 갔을 때 밤에 자다가 너무 추워 근처의 절에서 주인의 동의 없이 이불을 빌려(?)왔다가 다음날 혼났던 일, 4명이 겨우 들어가는 방에 아침에 일어나니 10여 명이 자고 있더라는 얘기, 연무시범에서 기왓장 20개를 격파하는 시범을 보일 때 여학



▲진짜 진짜 어려운 기술

올해 연무시범 중 고난도의 공중딜로차기 장면. 지켜보는 부원들이나 구경하는 학생들도 긴장한 표정이다.

생에게 잘 보이려고 긴장하는 바람에 수건을 깔지 않은 상태로 격파하다가 손등이 맞(?)이 가기도 하고 결국 덜 깨쳐서 머리로 다시 격파하고야 말았던 얘기 등등 재미있는 기억도 많다.

희망이 있다

연무시범에서 기왓장 20장 깨던 것이 IMF 이후 7장으로 줄은들 어떠랴. 남보다 더 많이 수련하고픈 마음에 친구에게는 집에 간다고 하고 도장으로 달려가 보니 그 친구도 거기 와 있더라는 어느 부원의 얘기처럼, 자기 수련에 순수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을 때 동아리는 활력을 갖게 된다. 자신과 맞벌어 한 판 벌여보자는 패기에 가득찬 이들에게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면 된다'는 희망이 그들의 편인데...

기억할 만한 그들의 생활 신조 하나.

'아무나 다 태권도인이 될 수 있었다면 난 결코 태권도부에 들어오지 않았다'



▲놀랐지?

올해 연무시범에서 이단 돌려차기를 선보이고 있는 부원.

<정순영 프리라이터>



하 권 익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스포츠의학과)

어린이와

태 권 도



심 종 섭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아정형외과)

장애 어린이와 운동

운동능력 회복과 감퇴는 천차만별

운동 기능이 다른 어린이에 비하여 매우 뒤처지는 어린이를 필자들은 외래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대개 선천성 이상이나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큰 사고를 당한 후유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태어날 때 조산(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경우)을 한 어린이인 경우 간혹 뇌성마비로 판명되면 운동기능, 지능 등이 정상적인 어린이보다 처지는 경우가 흔하다.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 신생아 때부터 여러차례 대수술을 받았던 어린이인 경우, 정상적인 어린이보다 발육이 현저히 느린 경우를 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심한 천식을 앓고 있는 어린이는 건장한 어린이들에 비해 달리기나 수영 등을 잘 못하고 차가운 날씨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여러 군데의 중요한 장기를 다치고 팔다리를 심하게 손상받은 어린이인 경우 운동능력 뿐 아니라 발육도 다른 어린이보다 느린 경우가 흔하다.

이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질병, 또한 그 외의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장애나 발육부진을 일으키는 다양한 종류의 질병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린이의 성장과정에서 다른 건강하게 자라는 어린이에 비하여 운동능력을 감퇴시키고 운동하려는 의지를 꺾

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의 잠재능력은 무궁무진하여 전혀 달리기를 못할 것 같은 어린이가 몇해 지난 뒤에 건강하게 달리기를 잘하게 성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반면에 운동 능력이 심각하게 뒤처지 않던 어린이가 단 몇달 뒤에 휠체어에 앉아서 서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어린이의 성장에 따른 운동 능력의 회복 또는 감퇴는 각 질병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이를 전문으로 진료하고 상담하는 의사들도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안의 어린이가 위에 열거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온 집안에는 우울한 먹구름이 드리게 된다.

대부분의 요즈음 부모들은 각종 선천성 질병의 원인과 치료, 향후 전망 등을 이야기해주면 잘 이해하고 아이를 위한 치료에 응하게 된다.

그러나 간혹 어린이의 질병에 대한 죄책감, 선천성 질병인 경우 동생을 낳았을 때는 다시 그러한 질병에 걸릴 수 있지 않나하는 우려 등으로 이를 치료하는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절망하는 부모들을 보기도 한다.

뇌성마비 후유증은 심각

운동능력이 감퇴하는 흔한 원인으로 최근 증가하는 질병 중 뇌성마비를 꼽을 수 있다.

이의 원인으로는 조산이 가장 흔한데, 과거에는 의료술 및 의료 기기 등의 미비로 조산아의 사망수가 대개 사망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극소 저체중을 갖고 태어나는 조산아도 살릴 수 있는 의술과 기기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어서 조산아의 사망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산아 사망률은 매우 급격히 감소하여 사망하는 어린이는 줄어들고 있으나 반면에 살아난 어린이들 중 상당수가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중 뇌성마비도 흔한 후유증인데 이는 조산아의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여 신생아 시절에 뇌에 충격과 손상을 받아 그 후유증이 성장과 더불어 골격 및 신경 계통의 신체에 나타나는 질병이다.

뇌성마비를 앓게 되면 대개 운동능력의 발육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다른 아이에 비하여 서거나, 걷는 시기가 느린 경우에 병원을 찾게된 어린이들 중에 뇌성마비로 진

어린이들의 운동적응능력은
때로 놀라울 정도다



한 사고이다.

특히 심한 사고를 당한 후에 과거 같으면 사망하였을 어린이들이 발전된 의술과 의료기기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만, 팔다리나 척추의 심한 손상으로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린이 후유증 치료는 시기와 방법 결정이 중요 적응능력 뛰어나므로 절대 포기 않도록

단되는 경우가 흔하다.

대개 수개월 가장 건강한 어린이보다 발육정도가 더딘 경미한 뇌성마비 어린이는 성장하면서 운동능력이 느리기는 하지만 계속 호전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거의 문제없이 모든 운동이 가능한 어린이들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어린이들은 현저히 운동능력이 처져서 특수교육, 또는 특수학교에 보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자라는 어린이들의 후유증 치료는 어른에 비해 빨라

운동 능력이 처진다하여 전혀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자기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렵지만 습득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모자란 부분의 기능을 다른 부위가 대신할 수도 있다.

산업사회가 복잡해지고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어린이에게도 증가되는 것이 자동차 사고 등을 포함

한쪽 다리가 짧았던가 한쪽 관절이 망가진 경우에는 운동 능력의 제한이 오게 된다.

자라는 어린이에게 이러한 제한적인 후유증을 치료하는 것은 어른에 비하면 대개 경과도 좋고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나 치료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다리를 잃었거나 매우 짧은 경우에도 어린이들은 자기들만의 세계 안에서 건강한 어린이들과 같이 운동하고 뛰어놀기를 갈망한다.

놀람게도 많은 어린이들은 대부분 적응하여 크게 뒤지지 않고 운동을 즐긴다.

운동능력의 제한이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정상의 건강한 어린이를 지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들은 자신의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능력이 어른들에 비하여 매우 뛰어나므로 미리 좌절하거나 실망하여 치료나 지도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들이나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 향기가 깃든



<연재 제 6회>

태권도 백과



이 경 명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태권도 문헌사 반세기, 그 문화

태권도 사도 문헌이 최초로 발간된 지 어언 올해로 48년을 맞는다.

태권도라는 명칭을 포함해 권법, 수박, 당수도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발간된 문헌은 70여 종에 이른다. 주종을 이루는 문헌은 역시 품새 편이며 그의 거루기론(2), 시범론(1), 철학(3), 지도론(2), 개론(3), 호신술(1), 태권도사(1), 교육론(1), 에세이/칼럼(1), 회고록(1) 등 여러 장르별로 저

술, 간행되었다.

그러나 태권도가 대학아카데미의 정식 학과로 엄연히 독립, 개설된지도 십여년이나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석박사가 배출된 현실을 감안할때 과연 학문으로서의 체계화가 얼마나 구축됐는가를 자문하며 태권도 문헌사 반세기, 그 문화를 살펴보자.

50년대 문헌을 통해 본 정체성

8·15이후 최초로 발행된 사도의 문헌은 '화수도 교본' (황기, 조선문화 교육출판사·1950)이다. 그로부터 5년후 '권법교본' (최석남, 동서문화사·1955)이 발간됐고 이어 '파사권법' (박철희, ·1958)과 '당수도교본' (황기, 계량문화사·1958)이 같은 해에 발간되었다.

두 권의 교본을 저술한 황기는 '화수도'라는 명칭 제정의 변에서 화랑도의 '화' 문자와 당수도의 '수' 문자를 차용, 합성하여 새로운 명칭을 제정, 확산하고자 했으나 인식도가 낮아 두번째 저술에서 당수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헌인 화수도교본은 초

花手道教本



▲광복 후 최초로 발행된 태권도 문헌 『화수도교본』과 필자 황기씨의 모습.



▲세계화에 성공한 태권도의 현주소를 반영하듯 태권도 문헌은 영문으로 발간된 것이 많다.

보자용으로 보급하고저 초판 3천부를 인쇄했는데 6~7백부를 보급하는 단계에서 교본 발간 한달만에 6·25전쟁이 발발했다.

황기는 『당수도의 본원지는 중국인 것이 확실하며 중국에서 오키나와로 전래돼 그것이 다시 일본 본토로 상륙, 보급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전까지 불길한 환경으로 싹트지 못하고 해방 후에야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기술했다.

이에 반해 파사권법(공수권법교전)의 저자 박철희는 책 표지에 강덕원 태권권법(공수도), 대한연무관권법(공수도) 사범이라는 직함을 밝히고 있다. 그는 현대 우리나라 권법에 대해,

『일제 36년 간에는 다만 '태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수개처에서만 수련하다가 해외로 유학했던 청년들이 귀국함에 따라 일본의 공수권법과 중국의 국술권법을 도입하여 '태권'과 아울러 정신수양과 청년들의 체력향상의 방법으로 서울 수개처에서 개설, 교수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권법을 소개하면서,

『이씨조선 중엽까지는 권법은 25법과 비법으로 10

법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저자는 사도 무술의 정체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태권, 권법 및 공수도 등 혼합된 명칭을 사용했다.

반면 같은 해에 발간된 권법교본의 저자 최석남은 당시 육군대령으로서 교본을 저술하기 전 약 1년간 군사교육을 받기위해 미국에 갔었다. 그의 교본 서문에서,

『그곳에 이미 권법의 열이 대단히 큰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인은 '권부', 일본인은 '가라테' 명칭으로 TV방송 및 잡지 등에 보급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당수나 공수라는 명칭은 다 '가라테'의 한자 표어이다』

『당수나 공수 또는 왜인이 만들어 낸 신조어인 가라테는 권법의 아주 작은 일지파이다』

『우리 권법이 처음으로 일본으로 수입된 것은 제 1차 세계대전 직후 오키나와인 富名要라는 자가 왜도 동경에 도항하여 권법을 주로 동경대학, 경음대학 학생들에게 보급시킨 것이 그 효시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일과 같이 체계적인 권법이 보

급된 것은 삼국시대의 일이다. 고구려의 각저총의 벽화와 경주박물관에 소장된 반부조금강역사탑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유술, 수박, 각저, 각력, 상박, 권법 등 그 명칭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권법이 보급되어 대중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로 서북지방에서 그 면모를 볼 수 있는 '박치기', '날치기' 등과 서울 이남에서 존명한 '택견' 등은 또한 권법의 이명인 것이다.』

그러나 『금일 우리가 사용하는 권법이란 중국에서 창조되고 육성, 발달된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위 저자 모두는 당시 보급되고 있는 기술체계로 보아서 우리 것이 아닌 중국의 권법으로 단정했지,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무술인 권법, 또는 수박, 택견 등으로 불리우는 무술 자체의 시원과는 무관한 입장이었다.

근에 발간된 '태권도와 나' 회고록 1권(최홍희, 사람다움·1998)에서 밝히고 있다.

『해방 전체인 1944년 1월 귀국, 일제말의 모든 역경과 악조건을 극복하고 지금의 서대문구 옥천동에 있던 당시의 영신학교 강당을 빌려 한국에서 최초로 '당수도청도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한국태권도의 보급에 투신했던 것이다.』

『후에 권법 비슷한 것이 신라의 화랑도들에 의해 애증되고 또한 필수무예로서 상당한 성황을 보다가 그후 이조말엽에 와서 죽기(尼技)로만 구성된 '택견'이 전해져 왔으나 그것마저 일제 때는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다.』

교본의 발간 연도를 봐서 이원국은 당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때이며, 그렇다면 책의 제명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을 노출하고 있다.

'태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태권이가 좋아"서 유래

황기는 1970년 수박도대감을 발간하면서 다시 명칭을 당수도에서 수박도로 바꾸었고, 지금껏 그 명칭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최석남은 당시 현역신분으로 사도를 군보급 교재용으로 저술했다. 그는 당수도니 공수도라는 용어사용 자체를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태권도 명칭의 최초 교본

60년대 후반 백만인의 태권도교본 (이교윤·1965)은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발간된 최초의 교본이다. 이어 태권도지침(최홍희, 정연사·1966), 태권도교본(이원국, 진수당·1969)등 세 권이 상계됐다.

이원국은 그의 저술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당수도를 보급한 자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표제의 태권도 명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는 1951년도에 일본으로 항급히 떠나기에 앞서 손덕성과 함께 최홍희를 찾아가 청도관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최홍희는 손덕성에게 청도관 2대 관장직을 물려주고 본인은 명예관장직을 수락했다고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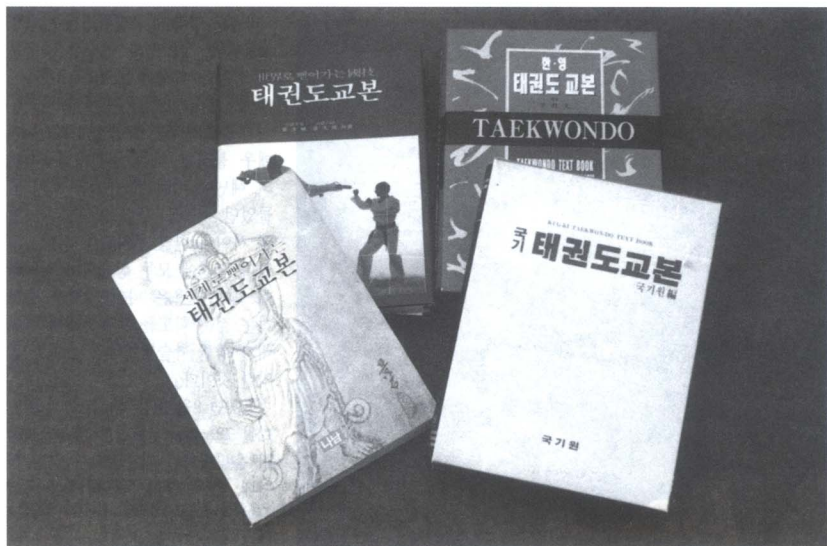
반면에 최홍희는 그의 저술에서 일본 공수도의 뿌리는 오키나와이고 오키나와 '수' 手의 원천은 중국 권법이라고 전해한 뒤 개명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해방 후에도 정확한 명칭을 찾지 못한 채 근 10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지났다는 사실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이나 사적 술적 견지에 부합되는 명칭을 선택함에는 적지않은 애로와 암운이 가로막혀 있던 차, 마침내 보병 제 29사단 창립 1주년 기념식(1954)전에 이대통령 각하 임석의 영예를 갖게 되었다.』

『이 늙음하고 회망에 가득찬 용사들의 믿음직하고 씩씩한 연무를 보신 이대통령께서는 '태권이가 좋아!' 이 말씀에서 새로운 용기와 특별한 힌트를 얻고 '태권' 이자(二字)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어 이 이자는 1955년에 개최된 사도 명칭제정회의에 다른 많은 명칭과 함께 상정되었던 바 '태권'으로 만장 일치 채택되었던 것이다.

얼마후 이대통령 각하로부터 '태권도'라는 친필로서 종전에 불려오던 구구한 명칭에는 실질적인 중지부를 찍었으며 이로써 잃었던 태권이 그 본연의



▲태권도의 이론을 정리한 각종 태권도 교본.

명칭을 얻게 된 것이다.]

'태권'에서 '태권'이라는 힌트를 얻게 됐다는 저자의 표현은 그가 어렸을 때 서예와 '태권' 무술을 한 일동 선생에게서 배웠다는 것과는 하등의 연계성을 찾아볼 수 없음이 석연치 않다.

지금도 사도 무도연구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는 이교윤은 영한 교본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태권도 원로이다.

특히 그의 문헌에서 돋보이는 내용은 구급법, 급소, 단련 등 항목은 잊혀져 가는 태권도 무도의 특성을 보존, 전승해 주고 있다.

공인 태권도교본 간행

대한태권도협회는 기술심의회에서 제정된 품새편을 태권도교본(1972)으로 엮었다. 그리고 제 2회 서울세계대회에 맞추어 세계태권도연맹은 영문판교본(신진각·1975)을 발간하여 태권도의 국제화에 기여했다.

이러 국기원은 태권도의 이론을 정리화한 국기태권도교본(1987)을 발간함으로써 태권도에 대한 정체성을 극명하게 밝혔다. 이는 공인 기술의 체계화 및 역사 등 이해, 바른 학습교재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했다.

영문판 교본은 오성출판사에서 출판된 바 있고 최근에는 비디오테이프와 함께 한 질로 판매되고 있어 학습효과를 높여주고 있다.

품새편 교재에 비해 겨루기편의 문헌은 지금까지 두권, 심판론 및 시범론이 각 한 권씩 발간돼 있는데, 이는 태권도 경기화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눈여겨 볼만한 문헌

90년대에 접어들어 주목할 만한 문헌이라면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김용옥, 통나무·1990), '태권도의 구조적 탐구'(김철, 원광대·1997), '태권도 교육론'(김철, 원광대·1986), '태권도'(이경명, 대원사·1997) 등이다.

TAEKWONDO 跆拳道 태권도 교본

李 教 允 編著



□ 품세 □

太 極 •
八 卦 •
高 麗 •
金 剛 •
太 白 •
平 原 •
十 進 •
地 跆拳道 •
天 拳 •
漢 水 •
一 如 •

一信書籍出版社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를 상세한 김용옥은 '이 땅의 건강한 체육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벗들에게'로 시작, 장서(서문)에서: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라는 이 매우 불행한 책은 일천구백구십년의, 예년에 비해 그 유례를 보기 힘들었던 너무도 무더운 북중 한 열흘 사이에 한양 무악길에서 탄생되었다. 본문에 모두 상술되어 있지만 이 책의 내용은 나의 철학을 호모하는 젊은 학도들과 두차례에 걸쳐 내가 행한 학술세미나의 성과를 집약한 것이다.』

『1990년 8월 18일 태권도학회(87년 12월 7일 발족) 제 2회 학술발표회가 올림픽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터인데, 그 학술회의에 나의 논문이 한편 발표되었으면 한다는 청탁이 왔다. 물론 보통의 경우 나는 이런 청탁에 응하지 않는다. 단순히 시간이 허락될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이 청탁에 응한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무려 19쪽으로 이어지는 장서의 변론은 태권도학회에 대한 항변이 아니라 태권도를 애증하는 벗들에게 던진 이 시대의 병폐를 논변하는 요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저자의 기행(奇行)은 여기서 끝나질 않고 있다.

철학교수에서 다시 한의학자로 변신 등 범상한 인물을 태권도계는 너무 평체한 것은 아닐까.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199의 '태권도'는 필자의 졸작이다. 이 시대 태권도 철학의 부재를 우려하며 태권도의 철학적 기초를 우리 한민족의 '한' 사상에서 해의, 이론화한 저자의 첫 소론임을 여기에 밝혀둔다.

▲1966년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최초의 교본을 발간했던 이교윤씨가 후에 증보판 「태권도교본」을 내놓았다. 표지 인물이 바로 저자인 이교윤씨의 품세 모습.

태권도문헌

여기에 기록된 목록에서 행여 빠뜨린 문헌이 없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양해와 제보를 바란다.

- 화수도교본 (황기, 조선문화교육 1960)
- 권법교본 (최석남, 동서문화사 1955)
- 파사권법 (박철희, 1958)
- 당수도교본 (황기, 계림문화사 1958)
- 백안인의 태권도교본 (이교윤, 1965)
- 태권도지침 (최홍희, 정연사 1966)
- 태권도교본 (이원국, 진수당 1968)
- 태권도지침 <포켓판> (최홍희, 정연사 1969)
- 당수도교본 <영문판> (황기, 1969)
- 수박도(당수도)대강 (황기, 삼광출판사 1970)
- 태권도교본 (최홍희, 성화문화사 1970)
- 태권도교서 (최홍희, 정연사 1973)
- 태권도교본 (대한태권도협회 1975)
- 태권도 <영문판> (세계태권도연맹 1975)
- 태권도 <체육교육자료집 40> (문교부, 서울신문사 1976)
- 정통 태권도 (최영의, 광학사 1976)
- 태권도와 침술학 (김수련 · 범기철 공저, 행림출판사 1977)
- 국기 태권도 (구홍식, 삼일서적 1980)
- 태권도 (정찬모, 동양문화사 1982)
- 무도교본 (육군사관학교, 형실출판사 1982)
- 제초 태권도 <학생스포츠타전집> (대호출판사 1983)
- 최신 태권도 (일신서적공사 1983)
- 태권도이론과 실제 (김경지 · 나봉순 · 이은승 편저, 형실출판사 1984)
- 태권도교본 (최홍희, 성화문화사 1985)
- 종합 태권도전서 (김병문 · 김정록 공저, 서림문화사 1985)
- 태권도교육론 (김철, 원광대 1986)
- 국기 태권도교본 (국기원, 삼호출판사 1987)
- 태권도 지도법 (김경지 · 김정래 공저, 법영사 1987)
- 태권도이론 (김대식, 김광성 공저, 나남 1987)
- 최신 태권도 (예종이, 형실출판사 1987)
- 어린이 태권도교본 (임홍수, 오성출판사 1987)
- 한국태권도사 (김경지 · 김광성 공저, 경운출판사 1988)
- 수련생을 위한 태권도 (김석련, 오성출판사 1988)
- 겨루기론 (최영렬, 삼학출판사 1988)
- 태권도교본 (이교윤, 일신서적공사 1988)
-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 (김응옥, 통나무 1990)

- 태권도 <한영> (송후섭 · 김종오 공저, 전원 1990)
- 철학적 무예인의 길 (이경명, 비전 1990)
- 중고생을 위한 태권도 (김석련, 오성출판사 1991)
- 태권도와 사회체육 (김종연, 크라운출판사 1992)
- 태권도시범본 (최영렬, 보경문화사 1993)
- 태권도개론 (김경지, 경운출판사 1993)
- 영한 태권도교본 (김정록, 서림문화사 1993)
- 무도철학 (황기, 세기원색출판사 1993)
- 한영 태권도교본 (이교윤, 창진출판사 1994)
- 태권도 겨루기 (이경명 · 정국현 공저, 오성출판사 1994)
- 태권도(영문판) (이교윤, 창진출판사 1995)
- 한국무술 미대륙 상록하다 (이호성, 스포츠조선 1995)



▲국기원에서 발행된 태권도교본과 1972년에 대한 태권도협회에서 발행한 태권도 교본.

- 세계로 뻗어가는 태권도 교본 (김대식, 나남 1994)
- 태권도 호신술 (최낙산, 오성출판사 1994)
- 태권도 심판론 (한상진, 서림문화사 1995)
- 태권도길잡이 <소책자> (이교윤, 창진출판사 1995)
- 다이내믹 태권도 <영문판> (이경명, 한림출판사 1995)
- 다이내믹 태권도겨루기 (이경명, 한림출판사 1996)
- 표준 태권도교본 (이교윤, 일신서적 1996)
- 투기 <태권도, 복싱> (한국체육대학 체육연구소, 교육부 1996)
- 국기 태권도 (편집부, 전원문화사 1996)
- 현대 태권도교본 (이기도, 진화당 1997)
- 태권도 겨루기 <영문판> (이경명 · 정국현 공저, 오성출판사 1997)
- 태권도의 구조적 탐구 (김철, 원광대 1997)
- 태권도 (이경명, 대원사 1997)
- 태권도 위생학개론 (오현승, 하태은 공저, 보경문화사 1997)
- 태권도 (한국태권도고수회편, 상아출판사 1997)
- 할렐루야 태권도교본 (김석련, 오성출판사 1998)
- 태권도교본 (임보순 · 박인수 공저, 거근당 1998)
- 태권도와 나(1, 2권) (최홍희, 사람다움 1998)

알 려 드 립 니 다

지난 8월호 42~43쪽의 내용중

<... 그러나 일설에 의하면 그는 (황기) 남만주 철도주식회사에서 일본사람으로부터 당수도를 익혔다는 설과 이원국 밑에서 운동을 하였다고 하며...>는 저자의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태권도 가족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히 움직인다



제 4회 아프리카태권도대회 겸 제 2회 여자 아프리카태권도대회, 케냐·레소토 종합우승

아프리카태권도대회가 8월 9일 Moi International Sports Center에서 18개국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대회는 원래 8월 7~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나이로비 미대사관 폭발사건으로 인해 하루로 줄어들었고 경기장도 바뀌었다.

원래 경기장은 폭발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약 200m 떨어져 있어 8월 7일 대회 시작 직후 폭발사건으로 경기장 유리창이 부서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폭발로 인해 시작 직후 대회가 중지되었고 케냐 정부는 며칠간 모든 집회와 행사를 중지하였다.

그러나 새로 아프리카태권도연맹회장으로 선출된 케냐 IOC위원 겸 NOC위원장 Charles N. Mukora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정부의 특별허가를 얻어 다른 경기장에서 8월 9일 대회를 치렀다.

대회 개회식과 폐회식 때 모든 참가자들과 관중들은 폭발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묵념을 올렸다.

점수제로 매긴 이번 대회 종합 결과는 남자부에서 케냐, 레소토, 아이보리코스트가 1, 2, 3위를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레소토,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 2, 3위를 차지했다. 세계태권도연맹에서는 이금홍 사무총장과 T/D로 김영태 자문위원(전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아프리카태권도연맹 총회

아프리카태권도연맹 총회가 8월 6일 나이로비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케냐 IOC위원 겸 NOC위원장인 Charles N. Mukora가 회장에, 케냐협회 사무총장인 James M. Chacha가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 이번에 선출된 Mukora 회장은 아프리카태권도 발

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아프리카태권도 발전이 기대되며 케냐의 나이로비가 아프리카태권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차기 아프리카대회는 짐바브웨에서, 시드니올림픽 아프리카선발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기로 결정되었다.

팬암지역 태권도대회

제 6회 팬암 주니어시니어태권도대회가 8월 8~9일 미국 어바인에서 열렸다. 유급자 정기 선수를 포함하여 10개국 1200여 선수들이 참가했다.

캐나다오픈태권도대회는 15개국 700여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애드먼턴에서 8월 14~16일 열렸다. 세계태권도연맹 송상근 사무차장이 두 대회 T/D로 참석했다.

3회 중앙아시아경기대회

1999년 9월 IOC 후원으로 열리게 될 제 3회 중앙아시아경기대회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키르기스공화국 NOC위원장 E. Koutmanaliev가 8월 5일자 서신에서 밝혔다.

김총재, 세계청소년올림픽 참석

김운용 총재는 7월 11~19일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 1회 세계청소년올림픽에 참석했다.

국제심판 보수교육 및 세미나

8월 3~4일 케냐 나이로비의 Kenyatt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에서 국제심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또한 8월 3~6일 37회 국제심판 세미나도 열렸는데 24명이 참가했다.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NEWS

시드니올림픽 조직위 임원 9월 서울 방문

위원장 Michael Knight, 사무총장 Sandy Hollway, 수석부위원장 John Coates와 스포츠부장 Bob Elphinstone를 포함한 시드니올림픽 조직위 임원들이 9월 한국을 방문, 9월 16일 IOC 집행위에서 시드니올림픽 관련 발표를 했다.

올림픽 솔리대리티 태권도 코스

7월 12~18일 베네주엘라의 바르셀로나의 Igor Beach Hotel에서 30여명의 교육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올림픽 솔리대리티 태권도 코스가 열렸다. 강사는 한국체육대학 이승국 교수.

회원협회 소식

터키

Cengiz Yagiz 회장과 이효주 사범이 이끄는 터키 국가대표팀이 7월 초 한국서 전지훈련을 했다. 7월 13일 Yagiz 회장은 세계태권도연맹을 방문, 9월 9~13일 이스탄불에서 열릴 제 2회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 준비에 관해 연맹임원들과 논의했다.

모나코

협회의 Angelo Spataro 기술위원장이 7월 한국 방문, 훈련.

페루

Federacion Peruana de Taekwondo 새 주소
Federico Villareal 529,
San Isidro, Lima, Peru
전화 : 511 442 0443
팩스 : 511 442 3017

스페인

협회 전화 지역번호에 9를 덧붙여야 한다.

전화 : 34 93 313 0245 / 47

팩스 : 34 93 305 5065

키르기즈공화국

협회 새 전화번호 : 7 3312 47 04 66

유럽태권도연맹

유럽태권도연맹 서명수 기술위원장이 7월 29일~8월 6일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방문.

홍콩

홍콩협회 Carl Men-ky CHING 회장이 7월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농구연맹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

카자흐공화국

신임회장 Isabekov Shamsat Zhaksylikovich, 김병렬 코치 등이 이끄는 12명의 국가대표팀이 청주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태권도축제 참석차 8월 15~21일 방한. 전임회장 Bekseit Tulkiev은 교통사고로 사망.

싱가포르

협회 John Lim 회장과 Lim Teong Chin 서기가 8월 말 방문. 8월 25일 김운용 총재 예방.

필리핀

제 21회 전국선수권대회가 8월 15~16일 니노이아 키노경기장에서 열렸다.

공 고

세계태권도연맹(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상호와 휘장(WTF emblem)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소유이며 세계태권도연맹의 사 전승인 없이 국가회원협회 이외의 개인이나 도장, 단체 등이 사용할 수 없다.



악마시대

〈연재 제 20회〉

호로아 글 · 그림

경상도 충청도로 번지는 농민봉기

동학군이 전라도의 각 고을들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못된 관리들을 혼내자 농민봉기는 경상도 충청도 지방으로도 번져나갔다.

양반들과 관(官)에 시달리고 있기는 조선팔도의 어느 백성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동학군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못된 관리들을 내쫓고 새롭고 깨끗한 정치를 펼치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라도와 이웃해 있는 경상도 충청도의 농민들도 용기를 얻고 봉기하기에 이르렀다.

경상도 김해에서는 농민들이 관아(官衙=관원이 모여서 공무를 보던 곳)를 들이쳐서 부사(府使) 조준구(趙駿九)를 거적에 말아 지경(地境=땅과 땅의 경계, 이 경우 고을의 경계를 뜻함)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충청도 회덕에서도 농민들이 일어나 무기고를 부순 뒤 무기를 빼내 관아를 점령했다.

이런 봉기는 공주 청산 진캄에도 퍼졌다.

제상(宰相) 신응조(申應朝)가 살았던 진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신응조의 손자 신일영이 마구 나쁜 짓을 저질러 백성들의 원한을 사고 있던 가운데 읍민들이 봉기했다. 읍민들은 그동안 쌓였던 분을 풀기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하고 만다.

일영의 아들을 묶어놓고 불알을 잘라버린 것이다. 이따위 도둑의 씨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끔찍한 사형(私刑=개인이 사사로서 범죄자에게 가하는 형벌)의 명분이었다. 복수로서, 그리고 후환(後患=어떤 일로 말미암아 뒷날에 생기는 걱정이

나 근심)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불알가기』는 당시 드물지 않게 치러졌던 만행(蠻行=야만스러운 행위)이었다.

남성을 거세(去勢=생식을 못하도록 불알을 떼어내는 것)함으로써 그에게 형벌을 가하고 그 자손이 태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후손이 복수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알가기』였다.

〈이 일을 어찌한다? 자리를 지키느라 버티고 있다가 자칫 잘못하면 무지렁이(무식하고 어리석은) 농군들에게 당할지도 모른다〉

무너지는 조선의 봉건제도 깨어난 농민들의 봉기로 붕괴는 더욱 가속화되고

농민봉기가 요원(燎原=불타고 있는 벌판)의 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삼남(三南=영남, 호남 및 충청도 지방을 통털어 이르는 말)의 수령(守令=고을을 다스리는 부윤, 목사, 부사, 군수, 현감, 현령 등의 관원을 두루 일컫는 말)들은 거의 모두가 발발 떨었다.

라주목사 민중렬처럼 똑 부러지게 소신이 강하고 배짱있는 인물은 드물었고 웬만한 수령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어 도망가기에 바빴다.

무너져가는 조선의 봉건제도는 자아의식(自我意識=외계의 의식에 대립해서 행동의 주체로서의 자기를 의식하는 것)에 깨어난 농민들의 봉기로 붕괴가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었다.

민비를 괴롭히는 악몽(惡夢)

『악!』

비단을 찢는듯 날카로운 비명이 왕궁의 밤공기를 흔들었다.

『중전마마!』

침전 밖에서 밤을 지새며 지키고 있던 상궁이 깜짝놀라 들어온다. 아직도 공포가 가시지 않은듯 눈을 크게 뜬 민비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마마! 나쁜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상궁은 어두운 분위기를 쫓아 내려고 전등불을 환하게 켰다.

미국의 에디슨이 전등불켜기에 성공한 지 단 7년만에 전등불은 우리나라로 건너와 경복궁에서는 밤을 밝히게 됐다.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민비는 상궁에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손을 가볍게 가로 흔들어 보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흉몽(凶夢=불길한 꿈)이란 말인가. 안되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지〉

민비가 꾸는 꿈은 참으로 섬뜩한 것이었다. 이런 꿈이었다.

— 왕궁 안은 온통 동학의 깃발로 뒤덮여 있었다.

칼과 창을 휘두르며 미친 듯이 날뛰는 동학의 무리들. 꿈속에서도 민비는 〈야아! 기어이 역도(逆徒=반역의 무리)들이 왕궁까지 침범했구나. 조선왕조는 드디어 수치를 당하고 마는구나. 열조(烈祖=공적이 뚜렷한 조상)를 무슨 낯으로 뵈는단 말인가〉

『쉬잇!』

조용히 하라는 구령이 떨어지자 미쳐날뛰던 동학군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었다. 그토록 시끄러웠던 요란이 가시고 물을 끼얹은 듯한 조용함이 지배하는 가운데 전봉준과 복면을 쓴 두억시니가 앞에 나섰다. 한가지 이상한 것은 그 자리에 고종 임금 없다는 점이었다.

〈도대체 이 위급한 상황에 삼강마마는 어디로 가신 것일까? 왜 나 혼자만 왕궁에 남아있게 된 것일

까?〉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힌 민비는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고종은 물론 상궁 내시(內侍)조차 단 한사람도 없었다.

왕궁을 침범한 동학군들의 무례함을 한마디라도 꾸짖어 왕비의 체통을 세워야 하겠으나 숨이 꼭 막힐듯한 불안감 때문에 입이 열리지 않는다.

마치 꿈속에서 맹수나 도둑에게 쫓겼을 때 마음은 급해 도망가려 해도 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경우



민비의 악몽은 동학군의 왕궁 점령이었다.

와 비슷했다.

그러한 민비의 모습을 두억시니는 복면속의 눈으로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으며 전봉준은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쳐들었다.

『민씨는 들으시오.』

〈아니 이 녀석들이 무엄하게도 중전마마라 부르지 않고 민씨라고?〉

민비는 한껏 눈을 부릅떴으나 전봉준은 끄덕도 없었다.

『민씨는 왕비됨을 기화로 착한 임금을 속여 나라일을 제마음대로 휘둘러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함부로 중요한 자리에 앉혀 백성들의 고혈(膏血=사람의 기름과 피라는 뜻으로 고생하여 얻은 재산을 말함)을 착취하여 사리사욕(私利私慾=개인의 이익

과 육심)을 채웠으니 그 죄 죽어 마땅하다』

전봉준이 민비를 향한 사형선고를 마치자 두역시니는 등에서 큰칼을 뽑아 높이 쳐들고 민비의 목을 향해 내리쳤다. 그 순간 민비는 비명을 지르면서 피를 쥔 것이다.

작은땀을 얼굴 뿐만 아니라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평소 담대하기로 이름난 민비의 불안한 모습에 상궁의 이마에는 근심의 빛이 서려있다.

『괜찮으니 염려 말고 물러가게』

민비는 애써 미소지으며 상궁을 내보냈다.

침전에 혼자 남은 민비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이제 농민봉기는 전라도 뿐만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로 번져가고 있고 언젠가는 조선팔도 전체가 말려들지도 모르는 기세였다.

그리고 이번 농민봉기의 불씨는 전봉준이 당겼고 그 전봉준을 강하게 뒤밀어주고 있는 인물이 두역시니였다.

〈아무래도 전봉준과 그의 문둥이 군사(軍師)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일 수밖에 없다〉

전봉준이 사형선고 내리자 두역시니가 큰칼 뽑아들고 민비의 목을 내리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죽인단 말인가.

〈지난 번에는 갑자(甲子)대원 20명을 보내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번에는 나머지 40명을 모두 보낸다면 제아무리 두역시니가 뛰어난 무인(武人)이라 해도 살아 남을 수는 없으려다〉

문제는 민비 자신과 민씨일족의 수호(守護=지키고 보호함)부대인 갑자대의 나머지 전원을 한꺼번에 두역시니 암살에 투입했을 때 서울에서 또 다시 임오군란(壬午軍亂)과 같은 변란(變亂=어떤 변고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지러워 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것이나? 였다.

〈좀 게름직하기는 해도 힘을 잃은 대원군 쪽에 별 움직임이 없고 신식훈련을 받은 근위대(近衛隊=궁궐의 호위를 맡은 군대)도 최심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니 별일 없겠지〉

임오군란 때 죽을뻔 했다가 홍계훈 덕으로 살아난 민비는 또다시 자신의 운수(運數=인간의 힘은

초월한 천운·天運)과 기수(氣數)를 믿고 갑자대 전원에게 두역시니 암살을 명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태권으로 벽이 뚫리다

『지금의 우리나라인 조선을 이성계라는 사람이 세우기 전에 이 땅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어』

월평산봉 기슭에 풀밭에 앉은 어린이들은 두역시니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동학군을 따라다니는 어린이들은 자기네들끼리도 잘 놀았으나 그들의 우상인 두역시니가 나타나기만 하면 무예숨쉬를 보여달라,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씨름터에서는 귀신같은 활약을 펼치는 두역시니가 어린이들에게 잡히면 맥을 못추고 그들이 조르는 대로 한동안 함께 놀아준다.

이날도 마치 도끼를 휘두르듯이 맨손의 손날로 나무를 쪼개는 격파시범과 세 손가락만으로 염전을 엇가락처럼 구부려 반으로 접는 놀라운 손아귀 힘을 보여준 뒤에도 꼬마들이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태권도의 전신(前身=바뀌기 이전의 본체·本體)인 수박(手搏)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 고려라는 나라에는 의민과 두경승이라는 수박의 달인(達人)이 있었어』

『아저(아저씨)! 달인이 뭐야?』

가장 나 어린 자갈이 손을 번쩍 들어 질문한다.

『아참, 달인이란면 너희들에게는 어려운 말이었구나. 달인이란 말이야, 어떤 한가지 일을 매우 잘 하는 사람이야 알겠니?』

『아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먹쇠도 달인이구나』

『그래? 먹쇠가 무슨 달인이야』

『아저, 먹쇠는 방구를 아주 잘 뛰어요. 그러니까 방구의 달인이지』

『오하하하하!』

자갈의 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어린이들은 모두 배꼽을 쥐고 웃음보를 터뜨렸다.

화가 머리 쥐고 끝까지 난 먹쇠가 자갈에게 달려드는 것을 추월이가 뜯어말렸다.

『그만 그만. 너희들이 시끄럽게 굴면 아저씨는 이야기를 그만두고 전봉준 장군께로 가버릴 거야』

두역시니의 이 말은 효과가 있었다. 어린이들은 모두 조용해지더니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두역시니의 이야기를 기다린다.

『이의민과 두경승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었느냐 하면 말이야. 이의민이 대궐의 큰 기둥을 주먹으로 지르니까 서까래가 흔들흔들 흔들렸다는 거야』

『와아아!』

이 말을 듣는 어린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 크다는 대궐의 큰 기둥을 주먹으로 치면 서

눈초리로 두역시니를 지켜본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라면 두역시니 말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복면 속의 두눈에 쓴 웃음을 띄면서 두역시니는 대답했다.

『글쎄 막상 부딪쳐보아야 알겠지만 아마 그 두사람이 나보다 강하겠지』

두역시니의 이 말을 자갈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냐. 아찌가 더 강해. 아찌만큼 강한 사람은 없어』

『그래 맞아. 아저씨가 제일 강해』

다른 어린이들도 일제히 손뼉을 치면서 자갈의 견해를 지지했다.

쑥스러움을 웃음으로 감추는 두역시니에게 호의와 신뢰가 듬뿍 담긴 눈초리를 보내면서 추월이는 생각했다.

〈아저씨는 다른 어른들과 달리 어찌서 아이들을 이토록 좋아하는 것일까? 특별히 어린이를 귀여워하시는 데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동학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는 활기와 웃음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다 수박의 달인
두경승과 이의민



까래가 흔들렸더니 얼마나 주먹힘이 강했을까?)

한동안 어린이들의 놀라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땀을 들인 두역시니는 다시 이야기를 잇는다.

『두경승도 이의민 못지않은 주먹힘을 자랑하고 있었지. 두경승이 주먹을 내지르자 벽이 땡 뚫렸다는 거야』

이번에도 어린이들은 놀라움으로 입이 따악 벌어진다.

『아찌!』

또다시 자갈이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들었다.

『그래 자갈 무슨일이야?』

『저어 그 이의민과 두경승은 아찌보다 강한 사람이야?』

모든 어린이들도 그 점이 매우 궁금하다는 듯한

두역시니는 정말 문둥이냐?

『그래, 두역시니는 정말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건가?』

선봉 이학승으로 하여금 300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장성의 동학군 움직임을 살피도록 보낸 뒤에도 영광에서 꾀꾀하고 있던 홍계훈은 삼돌이에게 물었다.

전주(全州) 감영의 간자(問者=스파이)인 삼돌이는 동학군 진영에 몰래 스며들었다가 발각되자 도망가서는 관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끈질기게 전봉준과 두역시니의 목숨을 노려왔다.

악명(惡名=나쁜 것으로 이름난)높은 안핵사 이

웅태의 길잡이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삼돌이가 이번에는 양호초토사 홍계훈 앞에 어김없이 나타나 그의 주구(走狗=원래는 사냥할 때 부리는 개의 뜻이지만 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쓰임) 노릇을 스스로 청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관군에는 삼돌이만큼 동학군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 서울에서 내려온 홍계훈에게는 더할 수 없이 편리한 존재였다.

『그게 말씀입니다. 장군님』

두역시니가 정말 문둥병에 걸려있는냐는 홍계훈의 질문에 삼돌이는 잠시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입을 열었다.

두역시니는 정말 문둥일까? 뜨거운 주전자 피하고 어린이와 잘어울리고...

『두역시니가 복면을 쓰고 있는 것은 문둥병에 걸린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랍니다. 또 고부에서 처음 들고 일어나기 직전 송두호의 집에서 거사모의를 할때 자신의 얼굴을 동학군 간부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진짜 문둥이 같습니다만...』

삼돌이는 말꼬리를 흐린다. 두역시니가 틀림없이 문둥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에 어떤 일인지 자신이 없는 듯한 말투였다. 다른 일은 모두 똑똑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삼돌이가 이 문제만은 엉거주춤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네는 혹시 두역시니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문둥이 행세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눈치 하나는 빠른 홍계훈이 물었다.

『아무래도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두역시니 자신이 문둥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비판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DDS 등 좋은 약이 나와 얼굴이나 몸의 모양이 변하기 전에 일찍 치료하면 완전치유가 가능해졌지만 당시만 해도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시절이라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리기만 하면 자신의 신세를 비판하고 한탄하게 마련인데도 두역시니는 전혀 그런 기색을 나타내

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호음. 그렇다면 비관이 지나쳐 자포자기(自暴自棄=절망상태에 빠져서 자신을 버리고 돌보지 않음)가 되어 발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

홍계훈이 나름대로 풀이한다.

『네. 그럴수도 있겠습죠』

삼돌이는 일단 홍계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말을 잇는다.

『둘째는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마비되고 손가락이 떨어져 버리는 데다 눈까지 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두역시니에게는 전혀 그런 기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죠』

삼돌이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두역시니의 피부감각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뜨거운 물이 끓는 주전자를 들고 두역시니의 손에 갖다대려고 했단다. 문둥병환자는 피부감각이 마비되어 뜨거운 것 찬 것, 아픈 것, 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뜨거운 주전자를 들고 두역시니와 스치면서 그의 손에 주전자를 대려고 하자 재빨리 두역시니는 한칸이나 몸을 날리면서 손에 주전자가 닿는 것을 피했단다.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이 그때 주전자의 뜨거운 온도를 느끼고 피했는지 아니면 손의 감각이 없어졌는데도 뛰어난 무사(武士)의 육감으로 부상의 위험을 느끼고 피했는지... 도무지 알길이 없습니다.』

홍계훈은 삼돌이의 말에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다.

두역시니의 가장 큰 약점

삼돌이는 마지막으로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믿는 듯 힘주어 말한다.

『셋째는 두역시니가 스스로없이 아이들과 함께 논다는 점입니다.』

『뭐? 어린이들과 놀아?』

홍계훈은 참으로 뜻밖이라는 표정이다.

『귀신도 때려잡을 것같은 두역시니가 아이들과 논다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군』

『그렇습니다. 두역시니는 아이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놀아줍니다. 어쩌면...』

『어쩌면...?』

『그것이 두역시니의 가장 큰 약점일지도 모릅니

다.

『어린이를 좋아한다는것이 약점이라...?』

『그렇습니다. 소생도 한번 두억시니가 귀여워하는 자갈과 분이라는 두 아이를 납치해서 그를 이끌어내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동진간 화호나루터 옆 큰나무에 두 아이를 묶어두고 두억시니에게 연락해서 끌어내 잠복시켰던 10명의 영병(營兵)으로 하여금 그를 죽이려 했으나 실패한 자초지종(自初至終=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홍계훈에게 이야기했다.

『으음! 정말로 무서운 녀석이군』

『저도 그때 나룻배를 미리 타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마 자네도 죽었을 거라는 이야기겠군. 아무튼 대단한 녀석인 모양이야』

『그토록 아이를 귀여워하는 두억시니가 아이들에게 무서운 문둥병 옮기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함께 노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말을 마친 삼돌이가 눈을 요리저리 굴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아닌게 아니라 삼돌이 자네 말도 일리가 있구먼. 어린애들은 어른보다 문둥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던데... 두억시니가 그 점에 전혀 마음쓰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군』

홍계훈은 삼돌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만약 문둥이가 아니라면? 두억시니는 어째서 스스로 남들이 싫어하는 문둥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일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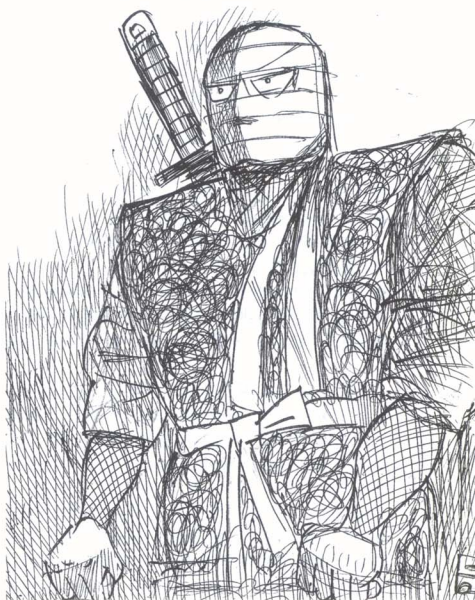
홍계훈은 권력의 핵심인 민비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오늘의 자신이 있는 것은 민비의 각별한 발탁(拔擢=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을 뽑아 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홍계훈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양호초토사로 임명되어 호남으로 내려온 뒤에에도 틈만 나면 그때그때의 상황을 보고하는 글을 세울의 민비에게 올려보내고 있었다.

물론 그 보고서의 내용은 자신이 동학란 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두억시니가 문둥이가 아니라면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중전마마께 보고 드려야한다〉

홍계훈은 삼돌이가 지적한 두억시니의 문둥병에 대한 3가지 의문을 상세히 적은 보고서를 민비에게 올려보냈다.

두억시니는 정말로
문둥병에 걸려 있는것일까?



불뱀은 관군의 선제공격

『앗! 동학의 파수꾼들이다』

『췌, 목소리 낮추게. 들킬라』

장성으로 향하고 있던 이학승, 원세록, 오건영이 이끄는 경군(京軍)은 황룡촌 가까이 이르러 먼저 동학군의 파수꾼을 발견했다.

동학군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경찰에 나갔던 경군의 척후병(斥候兵=적의 형편이나 지형 등을 살피기 위한 병사)들이 눈에 동학군 파수꾼들의 모습이 들어온 것이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군 본진이 머무르고 있는 황룡촌 앞에는 황룡천이라는 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영산강의 가장 왼쪽에 해당되는 황룡천은 강폭

역사속의 태권도소설 두역시니

이 150m쯤, 총길이가 120Km에 이른다.

황룡천은 월암 봉터 대해 부흥 방곡 원양룡 복촌 일평 신기촌 원월평 하사 다산을 양쪽으로 가르며 그 가운데를 흐르고 있다.

황룡천 넘어 저쪽에 동학군 본진은 자리잡고 있고 강 건너 이 쪽에는 동학군 파수꾼을 두명이 나무 그늘에 앉아있었으나 그들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잘됐네. 놈들은 잠들어 있어』

『너석들, 황토재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긴장이 풀어져 있는 거야』

경군 척후병들의 말이 맞는다. 황토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뒤 동학군 일부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방심(放心=걱정하던 마음을 놓아버림)하고 있었다.

그토록 군사(軍師) 두역시니가 『본진의 안녕(安寧=평화롭고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음)은 파수꾼에게 달려있으니 한시도 마음놓지 말고 임무에 충실하라』고 타일렀음에도 고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황룡천 강가의 파수꾼은 앓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보초가 임무수행 중 잠드는 것은 군율(軍律=군대의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 사형의 중죄(重罪=무거운 죄)였다. 슬금슬금 다가간 경군의 척후병들은 칼을 뽑아 단숨에 동학군 파수꾼 두명의 염통을 찢어 죽사시켜 버렸다.

〈됐다. 파수꾼을 처치했으니 적은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 온 것을 모를 것이다. 지금 기습을 감행한다면 빨빨이 달아날 것이다. 초토사도 기뻐하실테고...〉

이학승이 망원경으로 살펴보니 동학군은 황룡천 건너 월평장터에서 점심식사를 먹고 있었다.

큰 가마솔 5~6개를 걸어놓고 지은 밥을 밥주걱 대신 큰 조개껍데기로 퍼주면 주먹밥을 만든 다음 기름장에 적셔 먹는 것이 동학군의 전형적인 점심 식사였다. 동학군은 쌀이나 보리, 조 등의 곡식 등을 각자 머리에 두른 수건에 담아와서 모아 밥을 짓곤했다. 이학승이 거느린 경군이 눈앞에 다가온 것도 모르고 허기진 동학군들은 점심먹기에 정신이 없었다.

자신도 주먹밥 한개를 들고 막 입으로 가져 가려던 두역시니가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 최경선에게 물었다.

『파수꾼들은 사방을 제대로 경계하고 있겠지?』

최경선은 두역시니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얼핏 먹던 밥을 삼켰다.

『네, 염려 마십쇼. 모두 제 위치에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암, 그래야지. 지금 습격당하면 산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네』

스스로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다 싶었던지 쓴웃음을 띄운 두역시니가 복면 아래쪽을 풀어 주먹밥을 한입 물었을 때였다.

『과앙! 과앙!』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굉음(轟音=몹시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과 함께 대포알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으아악!』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몇십명의 동학군이 쓰러지고 점심 먹던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학승이 이끄는 경군 선발대는 쿠르프식 야포, 회전식 기관총, 포셜식 소총 등 최신 무기로 무장된 조선의 최정예(最精銳=가장 뛰어난)부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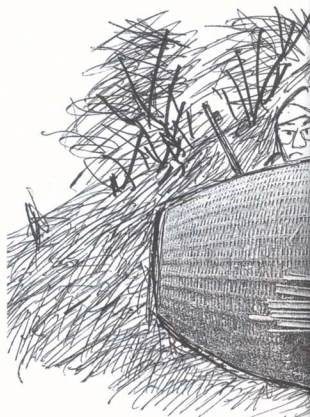
동학군은 각 고을을 점령할 때마다 무기고를 부수어 무장했다고는 하나 경군의 무기에 견주면 그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채래식 무기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동학군의 허를 찢어 경군이 먼저 기습했으나 기선(機先=상대가 행동을 일으키기 직전에 먼저 움직여 상대의 계획이나 기세를 꺾는 것)은 경군이 제압한 셈이다.

『산으로 철수하라!』

혼란 속에서도 늠름한 두역시니의 구령에 따라 동학군은 각자 자신의 무기를 챙기고 월평삼봉으

동학군은 장태를
산에서 밀고 내려



로 올라간다. 흠어져 산으로 올라가는 동학군을 향해 경군의 포격과 총격은 계속됐다.

비밀무기 장태를 굴러라

〈옳다! 됐다. 제가짓 것들이 황토재에서 좀 이겼다고 해보아야 역시 오합지졸(烏合之卒=까마귀떼처럼 아무 규율이 없는 무리)이야. 여기서 아예 전봉준의 숨통을 끊어 버려야겠다〉

이학승은 기습이 초반에 뜻밖에 큰 성과를 올리자 간이 커질대로 커졌다.

『모두들 잘 들어라! 이때를 놓치면 안된다. 적은



흔비백산해서 달아나기에 바쁘다. 공격을 늦추지 마라!』

총소리와 대포소리를 누비는 이학승의 호령은 신이 나있었다.

월평삼봉 산으로 철수한 동학군은 어느새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길게 옆으로 퍼져 경군을 포위하듯 했다.

동학군이 펼친 이 진형(陣形=전투의 대형)을 바

라보는 이학승의 얼굴빛이 싹 변한다.

〈아니 언제 동학군이 이토록 규율있는 무리로 변했단 말인가. 군사(軍師) 두역시니는 그토록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란 말인가〉

넋나간듯 동학군의 진형을 바라보던 이학승은 또 한번 크게 놀라게 된다.

『아... 아니 저게 뭐야?』

『이상한 것이 굴러 내려오네』

경군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산위에 있는 동학군들이 이상한 물체를 경군이 있는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나무를 타원형으로 길게 엮은 바구니 같은 것이 산비탈을 굴러 내려오는데 경군이 마구 쏘아대는 총알을 튕겨냄으로써 동학군의 방패구실을 한다.

『앗! 아니... 저건 장태가 아닌가?』

경군 가운데 농촌 출신이거나 아니면 농촌의 사정을 잘 아는 한 병사가 이상한 물체의 정체(正體=본디의 참모습)를 알아 맞추었다.

그렇다. 굴러 내려오고 있는 물체는 장태였다. 원래 장태는 닭을 살생이나 쪽제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타원형 대나무 우리다.

굴러 내려오는 장태 뒤를 따라 동학군이 내려오고 있었다.

경군들은 미친듯이 총을 쏘아댔으나 번번히 총알은 장태에 맞고는 빗나갔다.

그동안 동학군은 수백개의 장태를 만들어놓고 관군이 쳐들어올 때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아니 이럴수가...?』

『큰일났네. 총이 아무 쓸모가 없으니...』

이학승이 이끄는 경군은 큰 혼란에 빠졌다. 총을 아무리 쏘아야 장태에 맞고 튕겨져 나가는 데다 장태를 방패삼아 수많은 동학군이 산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비록 성능은 크게 떨어지는 개대가리총(火繩銃·火繩銃=노끈에 불을 붙여 화약을 터뜨림으로써 쏘는 총)으로 마구 반격을 가해오니 경군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

이학승의 비명같은 호령에도 불구하고 경군은 앞을 다투어 도망가기 시작했다.

『와아!』

경군이 꿈무늬를 빼기 시작하자 동학군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그 뒤를 쫓았다.

〈다음호에 계속〉

태권도 산책



홍 종 수

KOC 위원
전 국가원 부원장
전 대한태권도협회
상근 부회장

김구(金九) 上

8·15 광복절을 보내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가 순국하신 선열(先烈=웁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을 추모(追慕=죽은이를 생각하고 그리워함)하는 마음 간절하다.

선열 가운데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主席)으로 민족사에 불후(不朽=썩지않는다는 뜻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음을 이르는 말)의 업적을 남긴 백범(白凡) 김구(金九) 선생님의 파란만장(波瀾萬丈=물결이 만길 높이로 인다는 뜻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복과 변화가 심함을 이르는 말)한 생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1876년 아버지 김순영(金淳永)과 어머니 곽(郭)씨 사이에 태어났다.

자라면서 근육(筋骨=근육과 뼈대)이 남달리 강건했고 의지가 굳은 성품을 지녀 둘레의 주목을 끌었다.

아버지 순영공(淳永公)은 동네 일을 보면서 부자집보다 가난한 집에 도움을 주는 일이 많아 동네 유력자인 부자들로부터 적지않게 핍박을 받았으며 어린 김구까지 그 영향에 시달렸다.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섰던 아버지를 닮아 김구도 언제나 민중의 편이었다.

그는 일찍이 한학(漢學)을 배우고 17살 때에는 병서(兵書=군사작전에 관한 책)를 독학으로 익혔다.

뒷날 중국 상해(上海)에 망명했을 때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일본군의 헌병대나 특수기관의 기

민한 체포 움직임도 병법(兵法=군사 작전)을 통달하고 행동이 비호(飛虎=나는 듯이 날쌌 호랑이) 같은 김구를 잡을 수는 없었다.

그는 18살 때의 동학에 가담해서 지방 접주(接主)가 되기까지 했다.

그는 대대병력에 해당하는 동학군을 이끌고 해주(海州)를 공략하여 탐관오리들을 숙청하려고 했으나 동학의 봉기가 진압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해주의 안태훈(安泰勳)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때 몸을 의탁했던 적이 있다.

이 안태훈이 바로 뒷날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쏘아죽인 안중근(安重根)의 사의 아버지다.

김구는 안태훈의 집에 머물면서 이름난 선비 고



▲백범(白凡) 김구(金九=1876~1949) 선생은 1919년 3·1 운동 직후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몸담아 독립운동을 펼쳐 이봉창, 윤봉길 의사들의 의거를 지휘했고, 1933년부터 중국 장개석(蔣介石) 총통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광복군 총사령부 창설 등 민족 자력(自力) 광복에 힘썼다.

능선(高能善)을 알게됐고 그전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아 당시 우리나라가 놓여있는 상황을 알게 된다.

청일(淸日) 전쟁에서 중국을 이긴 일본은 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국모(國母)인 명성황후(明成皇后=민비·閔妃)를 시해(弑害=부모나 임

금을 죽임)하고 말았다.

김구가 그들의 잔인무도한 만행에 격분한 것은 물론이다. 삼남(三南=영남, 호남, 충청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방에 의병(義兵=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일어난 군사)들의 활동이 눈부시다는 소식을 듣고 김구는 삼남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황해도 안악(安岳)땅 지하포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김구는 일본군 장교로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던 쪼찌다(土田) 중위라는 자를 발견하게 된다.

격분한 김구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그가 차고 있던 군도(軍刀)를 빼앗아 참살(斬殺=칼로 베어죽임)해 버렸다.

김구는 그곳 사람에게 종이, 붓, 벼루와 먹을 가져오게 해서 자신이 일본군인을 죽이게 된 경위를 크게 써서 담벽에 붙였다. 놀라운 것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까지 적어 놓았다는 점이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의기(義氣=정의감에서 일어나는 기개)와 용력(勇力=용맹스런 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족사에 불후의 업적을 남긴 선열 떠난민장한 인생 속에서도 국가관, 민족관 투철

고향으로 돌아간 김구가 국모의 원수를 갚았다 는 사실을 알리자 가족들은 크게 놀라 그에게 망명하도록 강력히 권했다.

그러나 그는 『국모의 원수를 갚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며 사나이 대장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통쾌한 일인데 어찌 몸을 피하겠습니까』라고 태연히 향리(鄉里=고향마을)에 머물러 있었다.

끝내 김구는 일본관헌(官憲)에 의해 감혀서 제물포(濟物浦=인천·仁川) 감옥에 갇히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해내기 위해 힘을 썼으나 일제의 강압과 위협 때문에 재판부는 마지못해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천행(天幸=하늘이 준 은혜나 다행)으로 고종(高宗)임금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특지(特旨=특별히 내리는 임금의 명령)로서 사형집행을 3년동안 연기해 주었다.

구사일생(九死一生=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고 겨우 살아남)으로 살아난 김구는 옥중에서 죄수들을 가르치며 애국심을 심어주는 한편 자신은 문명 선진국의 새로운 학문을 익히느라 독서에 열중했다.

옥중에서 공부함으로써 김구는 세계정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확고한 국가관(國家觀=국가를 통일적인 전체를 보아 그 목적, 의의, 가치 등에 대하여 가지는 견해나 주장)과 민족관(民族觀)을 정립하게 된다.

1888년 고종의 특사로 출옥한 김구는 국내 여러 곳을 돌며 마침내 마곡사의 중이 되어 일본경찰의 눈을 피했다.

25살 때 과학문명의 발전없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 김구는 당시 새로운 문화운동의 핵심이 되었던 기독교에 입교하고 신식학교를 세워 직접 교편을 잡아 청소년 교육에 힘썼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合併)당해 국권(國權=국가의 주권)을 잃게되니 김구는 하늘이 무너진듯 슬퍼했다.

김구는 서울로 올라가 양기택(梁起鐸), 안창호(安昌浩), 이동령(李東寧) 등과 만나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하고 이동령을 남만주(南滿洲)에 보내 인재를 키우도록 하니 뒷날의 신흥(新興) 군관(軍官)학교다.

김구는 신민회사건으로 일본경찰에 검거된 데다 안명근(安明根=안중근의 동생) 의사의 조선총독 데라우찌(寺內) 암살계획에도 참여했다 해서 또 다시 15년형을 언도받는다.

복역중 메이지(明治·일본왕) 부부가 잇따라 사망하여 1915년에 출옥했으나 일본경찰의 날카로운 감시 탓에 눈에 띄는 활동을 못하고 동산평(東山坪)이란 고장에 농장에 들어가 농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에 대한 계몽을 하고 생활개선 방안도 지도하면서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에 걸쳐 일어나자 일제는 총검(銃劍=총과 칼이라는 뜻으로 무력·武力을 이르는 말)으로 탄압에 나섰고 수많은 애국지사가 투옥됐다.

이에 따라 중국 상해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김구도 그를 둘러싼 동지들의 간절한 권고에 따라 상해로 망명의 길에 오르니 그의 나이 44살이었다.

임시정부에 몸담게되면서 김구의 조직적이고 끈질긴 독립운동은 중국땅에서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 글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무도연구소(소장 민경호 박사)의 양해를 얻어 동 연구소가 엮어낸 논문집에서 골라 옮겨신고 있습니다.

대학 태권도 클럽을 만들었을 때 초보자는 이렇게 가르쳐라 ①

데이비드 코민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원

이 논문은 대학교의 태권도클럽 초급반을 가르치는 사범들에게 몇가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 논문은 위 주제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몇년동안 초보자를 가르치는

동안에 얻은 관찰을 공유하고자 쓴 글이다.

이 관찰 내용이 예전에 이러한 초보자 코스를 가르치지 않았거나 또는 현재 부사범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진선 옮김>

겨루기

학기의 마지막 무렵에 초보자 반도 겨루기를 해봐야만 한다. 겨루기는 승급 심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닦아온 다양한 기술을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겨루기 경험이 필수적이고 노란 띠에 걸맞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꼭 겨루기를 해봐야 한다.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시키기는 위해서 사범은 초보자보다 조금 실력이 나은 사람 몇 명을 초보자들의 겨루기 상대로서 초급반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

겨루기 연습을 하기 전에 겨루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질의 문답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겨루기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야만 한다. 사범이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겨루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 시간은 수련생들이 겨루기 시합과 교실에서 행해지는 겨루기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품는 의문에 대답하기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사범은 초급반에 있는 각각의 수련생들과 매우 쉬운 겨루기를 해봐야만 하고 때때로 수련생들을 고무시키고 높은 단계의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구사하는 상급자와의 겨루기 시범도 해야만 한다.

겨루기 연습을 하는 동안은 가능하다면 참가자들은 모든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수련생들에게 가슴 보호대(padding)를 착용한다고 해서 자신이나 상대를 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상

대의 신체를 자신의 신체와 같이 다룬다는 의미로 서로에게 머리속여 인사한다는 점을 알려야만 한다.

부사범 지도하기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에서의 부사범은 1급이나 2급의 빨간띠로 아직 자신만의 방법으로 남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초보자 반에서 사범이라는 지위의 책임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사범을 지도하는 것이다.

부사범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사범의 통제력 밖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업 과정의 초반부에 부사범은 사범이 모든 것을 발표하고 모든 것을 조직하는 것에 불만이 없다. 그러나 금세 부사범은 더 많은 책임을 떠맡고 싶어 한다.

부사범은 학기의 초반 처음 몇 주 동안 드문드문 수업에 참가하는 초보 수련생들을 도와줄 수 있다. 출석률이 좋지 않은 이러한 학생들은 뒤떨어진 진도를 따라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오직 부사범만이 그런 학생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범은 전체적인 수업 진행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다.

부사범이 규칙적인 기본 순서에 따라 준비 운동을



겨루기 지도에서는 초보자보다 조금 실력이 나은 몇사람을 지도에 참여시킴으로써
세심을 보여주고 수준향상 자극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도하되, 그 방법이 사범의 계획에 맞는지, 적어도 포괄적이고 논리적인지는 평가해 보아야 한다. 부사범이 반의 결석률이 높은 수련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이후 이들의 결석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 점을 부사범에게 설명하려. 또 이것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임을 설명하고 부사범이 수업을 진행할 때 모든 수련생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소리를 내야만 거침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고, 수련생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줘야만 한다.

종종 부사범들은 특이한 형태의 겨루기 기술이나 품새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 부사범들이 그들의 기술을 보여주고 싶어하면 사범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수업에서 빨간띠에게 기술을 구사하게 했는데, 이것이 빨간띠 수준에 맞는 예리함이 보이지 않거나 시행자가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금방 수련생들이 이점을 알아채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라도 사범은 학생들 앞에서 부사범의 부적절한 언행들을 지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부사범이 수업을 진행시킬 때 그들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때문이다.

부사범에게 계획표를 주어서 부사범들이 수업이 어떻게 짜여졌고 수업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더구나 어떤 이유에서 사범이 수업에 참가할 수 없을 때 부사범은 이 계획표에 따라 한 번 이상의

수업을 쉽게 진행시킬 수 있다.

계획표가 없다면 사범이 결강한 뒤에 다시 수업에 복귀했을 때 사범은 부사범이 그가 참석할 수 없었던 시간에 대신으로 태권도와 조금 비슷한 무술을 지도했음을 알게 되고 사범은 헛되이 쓰여진 그 귀중한 시간을 벌충해야만 한다.

그룹 지도

일반적으로 수련생 그룹을 하나로서 간주하고 지도하여 흔히 일어나는 문제나 실수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초보자 반에서는 어떤 수련생이 다른 수련생들에 비해 아무리 실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개인 한명에게 집중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명에게 집중하는 대신 부사범을 이용하여 그 수련생의 실력을 향상시켜라. 예를 들자면, 사범이 대부분의 수련생들이 팔찌르기를 가르치다가 그 가운데 너무나 앞으로 몸을 구부리는 수련생(이것은 보통 일어나기 쉬운 실수이다)을 발견하면 사범은 그룹 전면 앞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정확한 동작을 곧바로 보여주어 다시 연습을 하도록 한다.

태권도 초보자를 가르치는 데 이용되는 쓸모있는 교육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다음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1)제목, (2)모형 만들기, (3)판단, (4)그룹과 개인 지도



▲출석률이 좋지 않은 수련생에게 부사범이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여주면 태권도 수련에 흥미를 갖게되어 출석률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1. 제목

사범의 첫번째 임무는 흔히 일어나는 실수를 알아채어 가능한 짧게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제목이다. 예를 들어 “더 낮게 팔지르기”가 “나는 여러분 대부분이 약간 높게 팔지르기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수리를 향해서 팔지르기를 하세요”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제목을 만들 때는 사용되는 단어가 중요하고 첫번째로 사용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몇 개의 단어로 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수련생들이 단순히 실수를 한다기 보다는 적절하게 기술을 구사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 반에서는 사범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기술 구사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모형 만들기다. 즉 느린 속도와 정상 속도 모두로 기술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판단

이것은 사범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즉각적으로 알아채야만 하는 지도 과정의 한 단계이다. 사범은 수련생들의 수준을 분석해서 제목을 만들고 초보자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기술과 실수 교정의 모범적인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범은 어떻게 하면 잘못을 고쳐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빨간띠를 지도할 때는 세심하게 잘못을 고쳐주는 데 중점을 두지만 초보자를 지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초보 단계에서 발차기 하는 방식을 세심하게 교정해 주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

기본적인 기술도 차례차례 가르쳐야 철저히 계획, 조직해서 쉽게 익히도록

단하게 이루어진 좋은 제목은 학생들에게 잘 기억된다. 때로는 제목만으로도 지도하는 데 충분할 수 있다.

어떤 때에는 제목이 재생(再生) 다음에 와야 한다. 즉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사범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이론적 해석을 해서 설명이 사범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가장 어렵지 않게 기술을 통달할 수 있는 처방을 마련해 준다. 이 모든 것은 그룹 전체를 위해서 손쉽게 행해질 수 있다.

2. 모형 만들기

그러나 훌륭한 설명과 처방 조차도 수련생 지도에

4. 그룹과 개인 지도

사범은 자신이 알리기 원하는 것을 제목으로 결정해서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는가를 보여주고 이론적 해석을 해주고 교정을 위한 처방법을 내리고, 정확한 기술의 모범적인 형태를 보여주며 수련생의 능력 내에서 교정법을 분석한 다음에야 비로소 사범은 그룹과 똑같은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다른 수련생들은 모두가 빠르게 목치기를 하는데 한 수련생이 혼자서만 계속해서 손가락을 펼치고 목치기(neck chop)를 한다면, 잘못을 깨닫는 것이 공통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룹을 지도하는 기회가 아니다.

반대로 대부분(전체가 아닌)의 수련생들이 겨루기

연습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에 공포감과 당황함을 똑같이 경험한다. 이것은 그룹 전체와 함께 언급되어야 할 문제이다.

모의 승급 심사

사범은 초기에 승(급)단 과정에 관해서 설명해야만 하고 학기 중 적절한 때에 여러 가지 승(급)단 심사의 중요 요소에 대해 이야기 해줘야만 한다. 또 사범은 모의 승급 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짜야 하는데, 되도록이면 끝에서 두번째 수업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럼으로써 마지막 수업에서는 복습을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학생들이 중급이나 고급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실력 향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적어도 한 번은 승(급)단 심사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초보자 반의 수련생들은 사범들이 그들에게 승급 심사를 대비한 준비를 시키지 않는다면 승급 심사에서 너무나도 낮은 경험을 할 것이다.

모의 승(급)단 심사는 가능한 실제 심사와 똑같아야만 하고 부사범이 여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상위자나 유단자도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습은 승(급)단 심사와 똑같이 행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승(급)단 심사는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행해지기에는 너무 길다. 그러나 수련생들은 그룹으로 호명되고 전부는 아니지만 무작위로 선택되는 기술을 여러 번 행해야만 한다.

사범은 수련생들의 시연을 보고 등급이나 점수를 매기지는 않지만 기록을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도 그룹 지도가 가장 적절하다. 또 모의 승(급)단 심사는 부사범에게 관사자의 관점에서 이 심사를 보면서 이 심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승(급)단 심사

사범은 반드시 초보자 반 수련생들의 승급 심사에

참석해야만 한다. 오직 가르친 사범만이 수련생들이 준비한 기술을 알고 수련생들의 능력의 한계를 안다. 다른 사범들은 수련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수련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는 수련생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기술을 해보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심사를 받는 수련생들을 지도한 사범이 참석하여 승급 심사 동안에 친숙한 목소리로 행동 지시를 내림으로써 수련생들은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



▲그룹지도에서 사범은 그룹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집단적으로 바로잡아주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적 바로잡음은 부사범이 맡도록 한다.

결론

각각의 사범들은 이 초보자 과정의 교육 방침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본적인 기술이라도 차례차례 가르쳐야만 한다. 철저히 계획하고 조직해서 반드시 다뤄져야만 하는 모든 기술을 한학기 안에 쉽게 익히도록 해야 한다.

사범이 가르치는 기술을 연구하는 데 몰두한다면 수련생들은 정열을 가지고 배울 것이고 부사범들도 자신만의 교육 방법을 개발할 것이다.

초보자 반을 지도하는 것이 전체 태권도 클럽의 활성화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첫인상이 끝까지 남아서 초기에 태권도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그 흥분을 여러 해 동안 간직한다.



올 바 른 심판의 조건

(제 5회)

심판 뿐만 아니라 선수, 코치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리즈

판정 끝내고 검토해야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는 워밍업(준비운동), 경기를 마치고는 쿨링다운(정리운동)을 한다.

마찬가지로 심판도 경기를 앞두고 사전준비를 해야하며 경기를 마친 뒤에는 자신의

판정에 대한 검토를 해야한다.

충분한 사전준비는 올바른 판정이 내려지도록 대비하고 끝난 뒤에는 스스로 검토함으로써 다음에는 똑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써야한다.

경기 흐름

심판은 훌륭한 기획자, 또는 기술자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 경기와 경기 진행의 의미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Jim Casada는 코치나 주심, 몇몇 심판이 그들이 심판을 보고 있는 특정 운동 경기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경기 규칙과 판정의 테크닉에 있어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경기가 주는 미묘한 뉘앙스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심판을 보는 경기 종목을 반드시 뛰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실제로 경기를 해보지 않았을 경우, 경기의 실제적인 감각을 체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경기 전적이 좋은 5개의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와의 인터뷰에서, 그들 중 한명은 "경기를 직접 뛰 어보지 않은 심판이 더 많다. 나는 그들이 경기를 해 본 심판보다 더 좋은 심판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런 생각은 많은 심판들이 방관자적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 것 같다는 느낌에 기인할지도 모른다. 반면, 경기중 자신의 역할에 완전히 몰입하는 심판은 선수와 코치가 그들에게 바라는 열중의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경기 흐름 익히기

심판은 경기장에서진 TV를 통해서건 가능한 한 많은 경기를 보아야 한다. 선수와 함께 경기를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해 보라. 선수들 특유의 기술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경기의 상승과 하강을 재빠르게 인지하고, 경기가 주는 정서적인 함축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개발하도록 하라.

선수 시각에서 경기를 바라본 다음에는, 다시 심판의 역할로 돌아와 본다. 경기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경기 실천의 의미를 파악하는 직관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심판으로서의 미래는 과학과 심판 기술을 조합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다년간의 경험은 유용하다. 그러나 보다 빨리 효과적 심판에 필요한 지식과 직관을 획득해야 한다.

상상

상상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은 물론 경기 중, 당면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상상은 경기전 준비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 기술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특정 반칙 선언을 할 때 자신이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지 상상해 보라. 자신의 마음 속에

특정 상황을 만들어 보라. 휘슬을 불게 될지도 모를 반칙을 눈 앞에 그려보라.

이런 행동은 판정 능력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경기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상상은 정확한 판정 기술을 머리 속에서 연습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기 전에 자신의 경기 운영을 상상함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심판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경기 중에 떠오를 수도 있는 경기와 무관한 생각들을 더 잘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상상은 긍정적 경기 운영 결과를 마음 속에 새겨 주며,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여 준다. 따라서 긴장되거나 두려운 생각이 덜 들게 되는 것이다.

심판은 경기 1주일 전쯤부터는 상상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상은 필드, 코트, 수영장, 체육관, 또는 트랙에 나서기 전에 실시할 것들 중 가장 최종적인 것이어야 한다.

선택적 주의

심판은 개입이 꼭 필요한 행위와 상황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의미없는 행위나 상황은 차단해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행위와 무시해야 할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면 당신은 경기의 핵심에 더욱 잘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심판들은 가끔 주의를 기울일 것이 무엇인가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실수를 범한다. 예를 들면, 경험이 부족한 농구 심판은 공의 방향에만 신경을 쓰느라 공과는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못볼 수 있다. 따라서 리바운드를 위한 몸싸움같이 경기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어떤 점을 주시할 것인가를 아는 것은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심판은 그 주의 집중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



▲심판은 경기장에서건 TV를 통해서건 가능한 많은 경기를 보아 경기의 흐름을 익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선택적 주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선택적 주의란 자신의 환경 속에서 개입해야 할 선수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피로, 경기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 저하되는 의욕 등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의 초점을 흐리게 함을 상기하라.

주의 집중에 있어서 심판들이 경험하는 또다른 문제는, 특정 종목을 심판하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시야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떤 경기는 좁은 시야를 요구하는데, 테니스 네트 심판이나 배구의 라인 판정 심판, 또는 트랙이나 필드 육상 경기에서 결승선 심판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경기장 전체를 주시하여야 하는 농구나 축구같이 넓은 시야가 요구되는 심판도 있다.

주의 집중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경기 전 준비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선택적 주의를 발달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



▲경기진행 중 코치가 심판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된다. 심판은 경기운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운영에 있어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해야한다.

- ▶경기에 대한 심판의 의무를 점검한다.
- ▶판정이 필요한 리스트를 일괄해서 작성한다.
(예 : 야구의 홈 심판에게 있어 그 리스트는 내 야, 마운드, 볼, 스트라이크 존 등이다)
- ▶관중의 소란이나 사소한 움직임과 같이 판정에 불필요한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
-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나, 사람들이 방을 왔다갔다 하는 환경에서 경기 중계를 보며 판정을 해본다.

상을 위한 피드백의 활용을 주장한다.

피드백이란 경기 중이나 후에 획득되어 행동을 유지하거나 수정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일컫는다.

당신이 해본 경기 운영의 어떤 면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싶은가? 당신의 판정 기술 중에는 고쳐야 할 결점이 있는가?

피드백은 시각적, 언어적, 운동지각적(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통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스스로 체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주어질 수도 있다.

연구에 의하면 피드백은 (1)경기 직후에 실시하거나 (2)질적(능력 발휘에 관한 정보), 양적(능력의 결과에 대한 정보) 요인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보다 현저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하면, 심판은 경기가 끝나고 비교적 신속히 그들의 경기 운영을 평가해야 한다

경기 후의 과정도 더 나은 경기운영을 위해 중요

심판은 경기 끝난 뒤 신속히 경기 평가해야

경기후 평가

경기 전의 준비 과정이 효과적인 경기 운영의 가능성을 높여 주듯이, 경기 후의 정리 과정도,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다음 경기에서 더 나은 경기 운영을 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스포츠 심리학자나 운동 행위 분석자들은 실력 향

는 것이 명확해진다.

그러나 '신속히'라는 말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바로 평가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사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줄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경기 다음날 쉼이 경기 운영을 되새겨 보기에 좋은 시간이다.

경기의 비디오 테이프를 볼 수 있다면, 기억에만

요약

경기전이나, 경기가 진행중이거나, 경기가 끝났거나에 상관없이, 경기의 심판을 본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고된 작업이다.

경기전 준비 과정이나 경기후 정리 과정 모두 상

의존해서 경기를 되새겨 보는 수고는 덜 수 있다.
또는 동료 심판이나 경기를 지켜본 친구들로부터
도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원이나 자기 자신의 되새김을 통해 적
시에 정확하게 수용하는 피드백은, 앞으로 있을 경
기에서 좋은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
고 동기 부여를 해
줄 것이다.

피드백의 양적 측
면이란 심판이 반
칙 선언을 하고, 침
착을 잃어버리고,
경기에 집중을 하
고, 어렵지만 정당
한 결정을 내리고
등의 행위를 한 횟
수를 말한다.

그러나, 피드백의
양적 측면은 일반
적인 플레이보다
강한 시각적 인상
을 주는 장면이 더
잘 기억되는 관계
로 인해 오해의 소
지가 있을 수 있다.

피드백의 질적 측
면을 통해서만 경
기 운영에 있어 보
다 저변에 내재하
는 요인을 더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양질의 피드백은 심판이 위치를 벗어
났거나 경기 진행을 예측하고 있던 탓에 반칙 선언
을 놓치지는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피드백을 평가할 때, 자신을 칭찬함에 있어 정직
하라.

경기 운영에 있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를 가려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나 차트를 이용하
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경우에는, 칭
찬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비평에도 수용적인 자세
를 견지하라.

두가지 상황 모두에서, 자기 분석에 있어서는 조
직적이고 객관적으로 노력하라. 그 다음, 그런 철
저한 경기 후 분석은 보다 나은 경기전 과정을 설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심판은 판정에 꼭 필요한 행위와 상황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주
의집중 훈련이 필요하다.

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효과적인 판정을 위해서는 육체적인 준비와 심리
적인 준비 모두가 필수적이다. 피드백을 통한 경기
후 평가 작업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보다 향상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

사실, 훌륭한 판정가란 훌륭한 사전 준비와 사후
평가의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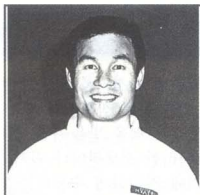
이러한 준비 과정과 정리 과정은, 당신이 커뮤니
케이션, 자신감, 동기부여, 긴장 해소, 집중, 그리고
상상 등의 심리적 기술을 체득하게 되면 더욱더 이
행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각의 심리적 기술은 당신
의 경기 운영 능력의 극대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전문가가 지도하는

태권도를 위한

시범 : 이 호 열
(태권도 공인 7단 / 국가원 심사위원)



지도 : 박영철

'76 미스터 코리아
'82, '86, '88 미스터 아시아
'88 미스터 유니버스 3위
'89 월드컵 2위
하얏트호텔 체력관리센터 부장

웨이트 트레이닝

옛 날에도 격투기를 익히는 사람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었다. 지금처럼 덤벨(아령)이나 바벨(역기)은 없었지만 쇠로 만든 추(鎚=저울 추) 같은 기구나 무거운 돌같은 것을 이용해 근력을 강화했었다.

오늘날 가라데나 킥복싱, 그리고 쿡후 등에서도 웨이트 트레이닝은 체력강화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기술을 다듬어 주지는 못해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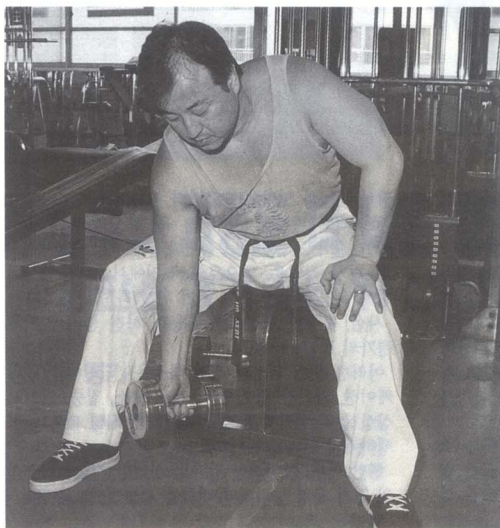
기술의 파괴력을 강화시켜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득점위주의 겨루기가 아닌 격파나 겨루기에서도 손기술과 발기술의 위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가장 효과가 있다.

어떤 트레이닝이 어떤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열심히 계속한다면 당신의 힘은 놀랄 만치 강해질 것이다.

덤벨 콘센트레이트 컬

DUMBBELL CONCENTRATE CURL



◀ 자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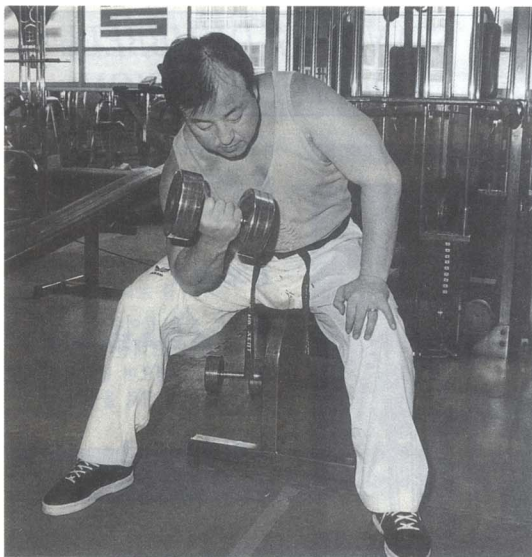
- ① 의자나 벤치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는다.
- ② 한 손에 아령을 쥐고서 윗팔 바깥쪽 부위를 넓적다리 안쪽에 고정시킨다.
- ③ 이때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이고, 다른 한 손은 같은편 다리 무릎 위에 놓는다.

◀ 동작 ▶

- ① 팔의 힘만으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아령을 어깨쪽으로 잡아 올린다.
- ② 천천히 팔꿈치를 펴면서 아령을 원위치로 내린다.

◀ 적정무게 ▶

신체의 다른 부위의 힘이나 반동없이



야 하며,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다시 아령을 들어 올리도록 한다.

◀ 발달 근육 ▶

- 이두근
- 전완근

◀ 응용동작 ▶

① 이 운동은 신체의 다른 부위의 힘과 반동없이 이두근의 힘만을 사용하는 운동이지만 쥘 때는 도중에 더 이상 실시 못할 때는 약간의 반동이나 다른 손을 사용하여 몇번 더 반복횟수를 반강제적으로 실시할 때보다 더 많은 자극을 이두근에 줄 수 있다.

② 팔꿈치를 넓적다리 안쪽에 고정시켜 실시하면 이두근 안쪽으로 자극이 옮겨 온다.

③ 엎드린 자세에서 양 무릎을 조금 구부리고 한 손에 아령을 잡

고서 다른 한 손은 다른쪽 무릎 위에 놓고서 상체를 지탱한 다음 쥘을 하면 순수한 이두근의 힘만으로 쥘을 하게 된다.

10번 내지 12번 할 수 있는 무게를 실시한다.

◀ 주의점 ▶

① 운동시 상체가 양옆이나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팔의 힘만으로 쥘(CURL) 동작이 되도록 한다.

② 손목은 항상 곧게 펴져 있어야 한다. 만일 손목이 운동중 구부러지게 되면 자극은 전완근(앞팔)으로 옮겨간다.

③ 아령을 내릴 때는 올릴 때보다 더욱 천천히 해

◀ 발달 시키는 동작 ▶

① 훅(HOOK)이나 어퍼컷트를 가격할 때의 편지력이나 파괴력 강화

② 일단 내밀어진 주먹을 다시 원위치로 돌릴 때의 스피드 강화

트레이닝의
도움말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강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도 근력과 심폐 지구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8가지 내지 10가지의 웨이트 트레이닝 종목을 마련해 놓고, 사용하는 무게는 자신이 최대로 사용하는 무게의 약 50%로 정해놓은 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운동 사이에 휴식시간 없이 한차례 실시하고서 약 1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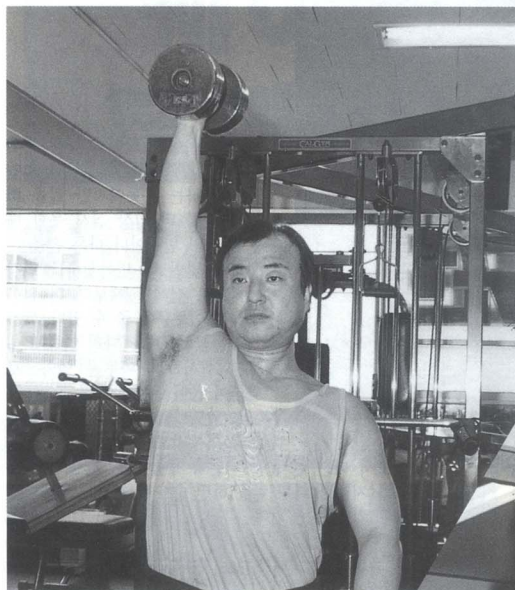
지 1분 30초만 쉬고 다시 반복한다.

운동을 하는 동안 맥박수는 1분간 110번 내지 120번 정도로 유지한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근력, 근지구력, 또 심폐지구력의 발달로 동작의 파워나 체지방의 감소를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서서 아령 들고 팔굽혀 펴기

STANDING DUMBBELL TRICEP EXTENSION



히 내려뜨린다.

② 팔꿈치를 펴면서 아령을 위로 올린다.

◀ 호흡 ▶

① 코로 숨을 들이쉬며 아령을 천천히 어깨쪽으로 내린다.

② 입으로 내뿔으며 팔꿈치를 펴면서 아령을 머리 위로 올린다.

◀ 반복횟수 ▶

앞팔을 제외한 윗팔과 다른 신체부

◀ 자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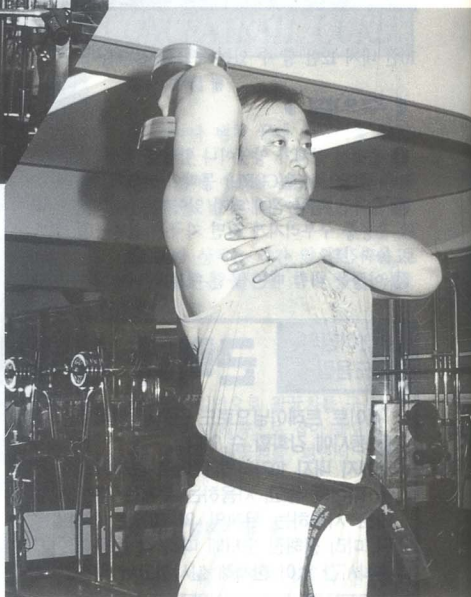
① 서서 한 손에 아령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올려 이두근이 거의 귀에 닿도록 한다.

② 다른 한 손은 실시하는 팔의 팔꿈치나 삼두근을 잡아서 고정 시키거나 혹은 다른 물체를 잡고서 운동시 팔이나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릎은 아주 조금 구부려 아랫허리에 부담을 줄인다.

◀ 동작 ▶

① 팔꿈치를 서서히 구부려 아령을 어깨로 천천



위의 움직임없이 10번 내지 12번 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한다.

◀ 주의점 ▶

- ①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 팔꿈치는 항상 위쪽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 ② 아령이 어깨쪽으로 내려올 때 천천히 내리며 위쪽으로 올렸을 때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다시 아령을 천천히 어깨쪽으로 내린다.
- ③ 손목은 항상 곧게 펴져 있어야 한다.
- ④ 양팔을 교대로 실시한다.

◀ 발달 근육 ▶

- 삼두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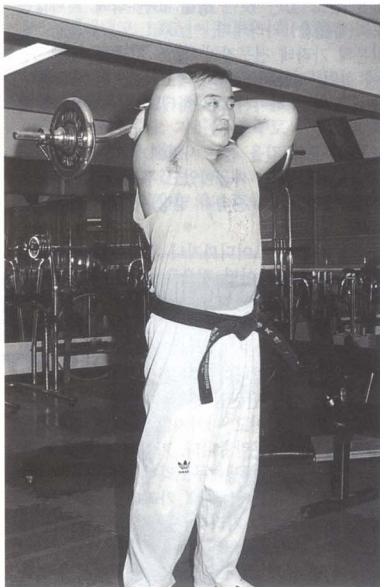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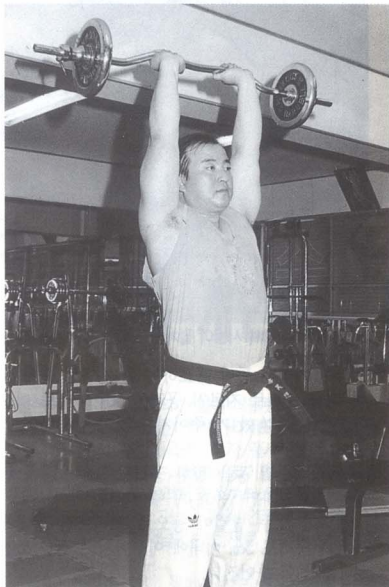
◀ 용용동작 ▶

- ① 아령 대신 역기를 사용할 때는 두 손의 넓이가 어깨넓이보다 좁아야 한다.
- ② 더이상 반복이 어려울 때는 프레스 동작으로 아령을 밀어 올리고 이두근을 귀에 붙이고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아령을 어깨로 내리는 동작을 몇번 더 반복하면 강력한 자극을 삼두박근에 줄 수 있다.

◀ 발달 시킬 수 있는 동작 ▶

- 편치력의 스피드와 파워강화
- 손날로 격파할 때의 파괴력의 증진

용 용 동 작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가라데 KARATE

합리적인 경기 룰로 주목 끄는 권도회 손에 의한 안면공격 등만 5cm 이내서 멈추기로

일본의 가라데에는 유파(流派)가 많다.

비교적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파가 있는가 하면 태어난 지 얼마 안되는 유파도 있다.

유파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첫째는 가라데에서 추구하는 이념(理念=무엇을 최고의 것으로 삼는가에 대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과 경기규칙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 유파에서의 갈등이나 주도권쟁탈이 다른 유파를 만들게 된다.

요즘 수많은 가라데의 유파 가운데 비교적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창설 15년 밖에 되지않는 권도회(拳道會) 가라데다.

일본의 가라데 전문잡지 「월간 가라데」(98년 9월호)에 실린 「권도회의 룰과 테크닉」을 간추려 본다.

— 권도회의 하야시 마사히데 사범은 이렇게 말한다.

「원래 무도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합이란 생사(生死)를 건 싸움이었고 무문(武門=무도의 유파)의 존망(存亡=존속과 멸망)이 달린 싸움이었습니다.

지금의 시합이란 어디까지나 경기이자 스포츠입니다. 단지 경기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경기룰과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권도회의 경기는 사회교육적 내용을 담고 안전성을 꾀하면서 룰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또 무도교육에 있어서 예절은 생명입니다. 경기는 가라데의 일부로서 말하자면 경기 단편일 뿐입니다. 경기대회에 나가는 시기만 현역이고 나가지않게 되면 평론가가 되어버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가라데는 평생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닦는 생애무도라야 합니다.」

가라데에는 「스도메(寸止) 가라데」, 「풀 컨택트(FULL CONTACT) 가라데」 등 갖가지 룰이나 경기 스타일이 존재한다.

「스도메」란 문자 그대로 상대방 몸앞에서 공격을 멈추는 경기방식이고 「풀 컨택트」는 손에 의한 안

면공격만 금지하고 나머지 공격은 모두 신체에 직접 닿는 것은 허용하는 공격 방식이다.

WKF(세계가라데연맹) 계열은 「스도메」 룰을 채택하고 있고, 재일동포 고(故) 최영의 관장이 창시한 극진 가라데는 「풀 컨택트」 룰을 적용하고 있다.

권도회의 경기를 편의상 쉽게 이야기하면 「안면예의 지르기는 스도메, 그 이외는 풀 컨택트」로 치르도록 되어있다.



▲권도회의 하야시 사범이 펼치는 호쾌한 얼음기둥 격파.

극진 가라데 등이 대표하는 풀 컨택트 룰에 안면에 대한 손으로 지르기 공격은 5cm 이내로 이루어지면 「유효」(有效)가 주어지는 것이 권도회의 경기 룰이다.

또 상대방의 등을 향한 공격도 5cm 이내에 컨택트된 지르기라면 「유효」가 주어진다.

게다가 모두 발걸이 등으로 쓰러뜨린 상대에의 지르기 공격도 5cm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절반」이 주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WKF 소속인 전일본 가라데도연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맹의 스도메 툴과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극진 가라데의 폴 컨택트에 안면을 향한 지르기 등만은 스도메를 적용하는 이 전도회의 경기 툴이다.

하야시 마사히데 사범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권도회의 창설자인 나카무라 히데오 선생님은 가라데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격필살(一撃必殺=한번 세계 침으로써 반드시 죽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르기에 의한 안면공격, 쓰러진 상대 혹은 등을 돌린 상대에 대한 공격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손에 의한 안면공격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도메 툴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카무라 선생님이 젊으셨을 때 치러던 연습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던 안면공격이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 모두에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글러브나 호구의 착용도 생각해 보았지만 각각 일장일단(一長一短=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음)입니다.

그래서 상단(上段=이 경우 안면)에의 지르기 공격은 5cm 이내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실전에서는 쓰러진다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쓰러뜨릴 상대에 대한 공격은 절반이 되도록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권도회 경기 툴은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란다.

『이상적인 경기를 제정은 영원한 과제입니다. 언제까지나 최상의 툴을 추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86살의 고령인데도 지봉 아래 나무뿌리를 받치는 나무토막을 실사리 격파하는 나카무라 총수.

지금의 툴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가라데도 권도회는 올해로서 창립 15주년을 맞는다.

창립자인 나카무라 히데오 총수는 1913년 한국에서 태어났다.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교토(京都)에서 본격적인 가라데 수업의 길을 걷는다.

1937년 교토대학을 졸업한 나카무라는 많은 제자를 양성해냈고 1966년에는 무덕회(武徳會)로부터 10단법사(範事)를 받았다.

1963년 제자들의 추대로 권도회의 창립 회장을 맡은 나카무라는 2년 전 회장의 자리를 제자인 이시야마에게 물려주고 자신을 총수로서 권도회 발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

크게 뻗어나고 있는 권도회가 앞으로 일본 가라데계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여자대학 개인품새 정상에

하라 씨하루(간키대학 4년)

일본여자대학 가라데의 샛별이 떠올랐다.
올해의 제 42회 전일본 학생가라데도선수권대회(6월 21일·오사카시 부림체육관) 여자 품새부문에서 하라 씨하루(간키대학 4년)는 숙령의 라이벌 고마야마 교코(데이쿄대학 4년)를 물리치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그동안 고마야마의 그늘에 가려 언제나 2, 3위에 밀려났었던 하라는 기백넘치는 품새로 드디어 여자대학 정상에 군림하게 됐다.

그러나 하라는 이미 세계여자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여자단체 품새에서는 우승한 적이 있으며 세계학생선수권 개인우승도 누렸던 적이 있는 실력파다.



40대 장년들 사이에 일고 있는 가라테 붐 정신력과 체력강화는 직장생활에도 도움돼



▲48살의 버스 운전기사인 오다 씨는 큰소리를 지를 기회가 없어 도장에서는 마음껏 큰소리를 지른다고 그의 꿈은 정년될 때까지 12년 동안에 검은 띠를 따서 어린이들에게 가라테를 가르치고 싶단다.

요즘 우리나라의 태권도 도장에서는 어린이들만이 수련하고 있다. 어쨌서 중·고생이나 대학생, 더 나아가서는 사회인들이 태권도에 땀을 흘리고 있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의 가라테 도장에는 사회인, 특히 장년에 이른 사람들의 가라테 도장 입문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가라테전문잡지 「월간 가라테도」(98년 10월호)에 실린 「최강 사회인을 지향하는 사나이들」을 간추려본다.

— 일찍이 「싸움이 강해지고 싶다」라고 열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얼마전과는 달리 지금은 「건강관리」, 「스트레스 해소」, 혹은 「옛날부터 동경하고 있던 가라테를 지금이라도 배워야겠다」는 등의 동기로 도장의 문을 두드리는 한창 나이의 비즈니스맨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호에서는 극진회관(재일동포 최영의 관장이 창시하고 현재 역시 재일동포인 문장규 관장이 이끄는 가라테 유파)의 도장에 초점을 맞추어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목표삼아 도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살펴본다.

극진회관 도교 조사이 지부장인 야마다 마사토 시 사범은 10년동안 가라테를 떠나 있었다.

우스운 것은 가라테 현장을 떠나있던 10년동안 야마다 사범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클럽에 다녔었다.

10년만에 가라테 현장에 돌아온 야마다 사범은 헬스클럽에서는 맞볼 수 없었던 가라테의 매력을 재확인했다.

『가라테의 가장 큰 이점은 큰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회사에서 큰소리를 지르면 동료로부터 이상한 눈으로 보여질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도장에서는 얼마든지 큰소리를 지를 수 있지요.

큰소리를 낸다는 것은 단전(丹田)을 단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호흡법에도 연결이 됩니다. 헬스클럽에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운동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또 가라테는 테니스나 야구와 달리 온몸을 고루 쓰는 온몸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이나 팔꿈치를 과도하게 써서 망가뜨리는 일도 없습니다.

근력도 쓰지만 지구력도 씁니다. 좌우 균형잡힌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가라테는 한마디로 매우 좋은 운동이라고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동안 밀이 어둡다고 선수로서 활약하고 있을 때는 몰랐던 가라테의 다른 측면을 10년만에 복귀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다.

몸과 몸이 부딪치는 그런 강열함에 끌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교 긴자(銀座)에 있는 일본관재(管材)센터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이토 신지로(47) 씨라는 직장인이다.

원래부터 스포츠를 좋아해서 젊었을 때는 등산에 날 새는 줄 몰랐었고 집 근처의 헬스클럽에서 근력 트레이닝도 쌓아왔단다.

이토씨가 동네의 가라테 도장을 두드린 것은 지금부터 6년전이나가 41살 때 일이다. 『지금까지 몸과 몸이 부딪치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싱이나 가라테 같은 격투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각이 있었습니다.』 그 뒤 매주 닷새는 도장에서 땀을 흘려 왔다.

『처음에는 도장에 가는 길에 발이 무거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는 언제 근무지가 달라져 도장에 다니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니 연습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두자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이토씨가 가라데를 계속하도록 결정적인 도움말을 준 것은 도장 선배란다.

그 도장 선배는 나에게 가라데 연습은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것, 그리고 저녁에 목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일부다. 세수를 안하거나 목욕을 안하면 기분이 찻찻한 것처럼 가라데 연습을 안하면 역시 찻찻하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이토씨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가라데 연습에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도장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의 생활 스타일은 아침 5시반에 일어나 7시 50분에 출근, 8시 45분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녁에는 대개 6시반에서 7시 사이에 퇴근한다.

저녁 7시 30분부터 연습에 참가하고 9시에 끝나서 집에 도착하면 11시가 지난단다.

이토씨의 경우 자신이 다니는 간다(神田)도장의 책임자인 가미오 사범이 아직 31살이라 16살이나 아래지만 그 지도방법에 이토씨는 만족하고 있다.

『먼저 도장에 입회해서 느낀 점은 교육과정이 매우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맡은 선생님이 선

배들의 지도도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어서 매우 알기 쉽습니다. 연습내용도 싫증이 안나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보다 나이 아래의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습니다.』

이토씨가 다니는 간다도장은 오피스 빌딩이 즐비한 곳이라 수련생 100명 가운데 소년은 약 10%에 지나지않고 거의 모두가 직장에 다니는 사회인이다.

수련생의 평균연령은 30대 중반이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31살의 가미오 사범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이 든 분들의 가라데 지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놓고는 늘 생각합니다. 30대 후반이면 몸이 굳은 분이 많아 다리를 들어올리다보면 근육이 상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체력에 너무 자신이 있어 무리해서 다치는 수도 있습니다. 연습메뉴는 기본과 품새를 짜고 — 가라데는 즐거운 것이다. 도장에 가고 싶다. — 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관리, 「스트레스 해소」라는 가벼운 기본으로 입문하지만 승급심사를 통해 띠의 색깔이 달라지면 차츰 마음가짐도 달라진단다.

『승급하게 되면 후배도 생기고 자각과 책임감도 생겨나 정신적인 부분이 달라집니다. 연습에 익숙해지면 체력이 붙는 데다 어느 정도 겨루기에도 강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도중에서 그만두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고 30~40대는 꾸준히 계속한다는 점입니다.』

40대 들어서의 정신력과 체력의 강화는 그 사람의 직장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오피스 거리에 자리잡은 가라데 도장에는 요즘 30~40대의 수련생들이 늘어 나고 있다.



▲47살의 회사원 이토씨는 가라데를 익히기 시작한 지 6년. 현재 극진 가라데 2급이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복싱 BOXING

멀기만 한 헤비급 타이틀 통합의 길 루이스는 메이브로비치와 대결기로



▲WBC 헤비급 챔피언 레녹스 루이스는 WBA, IBF 챔피언인 이븐더 홀리필드와의 대결을 추진했으나 홀리필드 쪽의 의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BA(세계 권투 협회), WBC(세계 권투 평의회), 그리고 IBF(국제 권투 연맹)의 타이틀 통합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WBC 헤비급 챔피언인 레녹스 루이스(영국)는 9월 26일 미국 코네티컷 주 앵커스빌에서

등급 1위인 제리코 메이브로비치(크로아티아)를 상대로 4번째 타이틀 방어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팬들이 목마르게 기다렸던 WBA, IBF 챔피언인 이븐더 홀리필드(미국)와의 타이틀 통합전도 뒤로 미루어졌다.

지난 7월 1일 루이스는 미국의 유력한 케이블 TV인 HBO와 7개 경기의 계약을 맺어 이번 메이브로비치와의 타이틀 매치가 그 첫 경기가 된다.

루이스와 HBO의 계약에는 홀리필드와의 타이틀 통합전에 관한 특기사항도 있어 만약 이 카드가 실

현되면 홀리필드가 희망하는 2000만 달러(약 280억원)를 지불한다는 조건도 포함돼 있다.

루이스쪽은 지난해 홀리필드에게 타이틀 통합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1500만(약 210억원)달러를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던 적이 있다.

이번 HBO와의 계약강신을 수락하면서 루이스는 홀리필드와의 타이틀 통합전 실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루이스에게 메이브로비치전은 타이틀을 지키기 위한 경기 이상의 뜻이 없지만 이 경기의 승리를 전제로 12월 5일이나 12월 홀리필드전을 갖자고 2000만 달러를 제시했다.

그러나 홀리필드쪽에서는 『2000만 달러로는 너무 적다. 2500만 달러(약 350억원)가 아니면 홀리필드는 링에 오르지 않겠다』는 대답이었다.

이 회답을 받은 루이스는 어안이 병병한 표정.

『결국 홀리필드가 패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됐다.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는 것 뿐이군』이라고 타이틀 통합전 실현을 반쯤은 체념해버린 모양.

한편 지난 6월의 헨리 마킨완데 전이 중지된 홀리필드는 IBF 1위인 본 비인과의 지명방어전도 소화해야되기 때문에 여간해서 타이틀 통합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홀리필드와의 대결을 완전히 체념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기분은 정리됐다. 아무튼 눈앞의 도전자들을 차례로 물리치면서 방어횟수를 늘려 나가겠다』고 루이스는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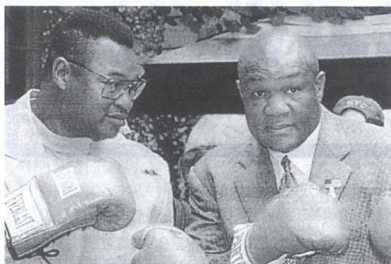
노장들의 대결 드디어 실현 50살의 포먼과 49살의 홈즈

헤비급 세계챔피언을 지낸 노장주먹끼리의 대결. 조지 포먼(50·미국)과 래리 홈즈(49·미국)의 경

기가 내년 1월 23일 드디어 실현된다.

두 선수의 나이를 합치면 99살이나 된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헤비급 세계챔피언을 지낸 두 KO 펀처. 49살의 홈즈(왼쪽)와 50살의 포먼이 내년 1월 대결을 벌이게 됐다.

파이트머니는 포먼이 1000만 달러(약 140억원) 홈즈가 400만 달러(약 56억원).

『홈즈가 대결하자고 자꾸 조르는 것을 거절해왔지만 나도 인간이다. 1000만 달러라는 큰 돈의 매력을 이길 수는 없었네.』 지난 7월 15일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 회견장에서 포먼은 한동안 표정 없는 포커페이스로 사람들을 웃긴 뒤 『언제나처럼 KO를 노리겠다. 그러나 단발펀치로 쓰러뜨리는 것

이 아니라 호되게 혼을 낸 뒤 끝장내겠다.』고 일찍이 하지 않았던 화려한 필승선언을 털어놓았다.

한편 홈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쓴 웃음을 띄고 『오랜동안 꿈꾸어왔던 포먼과의 경기가 실현되기에 이르러 매우 기쁘다. KO가 될런지 판정이 될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내가 이기는 것은 틀림없다.』고 장담했다. 회견이 끝나자 개별질문을 위해 둘레에 모여있는 기자들을 향해 홈즈는 『내일부터 맹훈련에 들어가 땀을 많이 흘리겠다.』고 말한 뒤 맥주를 몇병 주문해서 승리를 위한 축하까지 들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두 노장의 언동이 어디까지 진심이고 어디까지 농담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경기를 두 사람 모두 헤비급 전선에서 다시 두각을 나타낸 마지막 찬스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같으면 94년 11월 포먼이 마이클 무어러를 쓰러뜨리고 45살 11개월의 사상최연장 타이틀 탈취 기록을 세운 직후에 대결했다라면 더욱 화제를 불렀겠지만 지금이라도 적지않은 팬들의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돈 킹 프로모터에 무죄평결 보험금 사기용의에서 풀려나

미국의 이름난 프로모터 돈 킹의 보험금 사기를 둘러싼 지난 7월 9일의 대공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무죄로 나왔다.

91년 6월 킹은 자신이 프로모터하는 홀리오 세살 차베스 대 해럴드 브레이저 전이 차베스가 트레이닝 중 부상을 입는 바람에 중지됐다고 이벤트중지보험을 담당하고 있던 영국의 로이드사에 손실액으로서 약 67만 달러(약 9억 4000만원)를 청구했다.

그러나 로이드사는 이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받아들인 미국 검찰은 킹의 청구액 가운데 35만 달러(약 4억 9000만원)가 부풀려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킹은 기소됐었다.

95년 가을에 치러진 공판에서는 배심원의 의견이 일치되지않아 다시 재판하기로 됐다.

차베스가 킹에 대한 불쾌한 증언을 하는 등 재공판을 앞두고 킹의 유죄가 유력시됐었다.

그러나 평결이 사흘 나흘 연기되면서 형세가 차



▲무죄평결을 받음으로써 돈 킹은 최고 45년의 금고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츄 변화해서 배심원들은 『킹이 유죄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무죄가 발표됐다. 이로써 킹은 최고 45년의 금고형을 벗어나게 됐다.

8월 27~28일
(국기원)

제 25회 전국대학개인선수권대회 겸

제 6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한국대표 선발대회

한체대 6명 배출, 최강팀으로사의 지력 보여

오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 6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 파견할 대표선발전이 지난 8월 27일과 28일 국기원에서 펼쳐졌다.

태극마크를 향해 치열한 점전을 벌인 결과 한체대가 모두 6명의 대표를 배출하며 대학 최강팀의 지력을 보여 주었고 경희대와 동아대가 각각 3명의 대표를 배출했다.



▲대학연맹 전수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선수들의 경기를 진지하게 관전하고 있다.

◀노회덕 대학연맹 명예회장(서울대 교수)이 뛰어난 지도력으로 6명의 대표를 배출한 한체대 문진재 코치에게 지도상을 수여하며 축하해주고 있다.

제 25회 전국대학개인선수권대회 결

남자 헤비급



'96 세계대학선수권 금메달리스트

'96 세계대학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동아대 문대성(청)을 결승에서 경희대 박훈수(홍)를 4:1로 이기고 대표로 선발, 2연패를 올리게 됐다.

남자 라이트급



▲라이트급 결승에서 경희대 김정수(홍)의 오른발차기 공격을 용인대 이준희(청)가 피하고 있다. 이준희는 3:2 판정승을 거두고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다.

▶용인대 조승원(청)과 한체대 노현구(홍)가 페더급 결승에서 득점을 주고받는 치열한 접전 끝에 노현구가 6:5로 판정승

남자 페더급



제 6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한국대표 선발대회



남자 밴텀급

남자부 밴텀급 결승전에서
한체대 김학수(청)와
경희대 홍동락(홍)이
동시에 일반공격을 하고 있다.
김학수가 7-5로 승리를 거두었다.

공격, 반격의 연속

▶ '97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인
한체대 윤송희(홍)는
경희대 전성아(청)의 끈질긴
추격에 5-5 동점까지 가며
우세승으로 힘겹게
핀급대표로 선발되었다.



여자 플린급



여자 웰터급

웰터급 결승에 오른 한체대 안은아(청)와
경희대 김유진(홍)이 득점을 주고받는 가운데
4-2로 안은아가 승리.



여자 페더급

페더급 결승은 '97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상명대
강해은(청)이 패기로 맞서는 한체대 정지원(청)의 공격을
받아치며 10-6으로 판정승.

제 21회 연세대총장기 전국남녀고교단체대항대회

지난 8월 25일과 26일 연세대체육관에서 펼쳐진 연세대총장기대회에서 동성고는 이 대회에서 모두 6번째 우승을 달성하는 한편 여고부 경기에서 리라공고는 대회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여고부 최강팀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동성고 6번째 우승, 여고부 최강팀



▲남고부 결승에서 동성고 오현근(청)과 동생고 서정훈(홍)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동성고가 3-0으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축하합니다! 짹짹!”

◀연세대 박준서 부총장이 리라 공고 박영수 교차에서 지도상을 수여하며 축하해주고 있다.

제 21회 연세대충장기 전국남녀고교단체대항대회

오른발차기로 승리 따내

▶여고부 결승에서 리라공고의 윤성희(홍)가 고양중고의 김윤미(청)를 오른발로 공격하고 있다. 리라공고가 2-1로 우승을 차지했다.



리라공고 4연패 달성



▶남고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동성고 태권도부. 왼쪽 끝이 지도상을 수상한 이원희 코치이며 오른쪽이 이철주 감독.



나의 겨울 상대는?

▶5명 단체전 경기로 펼쳐져 박진감 넘친 경기가 이어졌다.

제 9회 문화관광부장관기전국남녀중고태권도대회

제 9회 문화관광부장관기대회가 지난 8월 9일부터 18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전국의 344개교에서 2,203명의 선수가 참가해 10일간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풍생고와 리라공고, 신관중과 대원여중이 남녀 고등부와 중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정준웅 중교원맹목장이 태화사를 통해 참가선수와 지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김완수 중교원맹목장이 신관중 이태현 코치에게 지도상을 수여하며 축하해 주고 있다.



여중부 평급 결승은 대회 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주고받는 기염을 토하며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 만수여중의 김진라(중)가 10-0로 심산중의 심여진을 이겼다.

제 9회 문화관광부장관기전국남녀중고태권도대회

▶남고부 폐급 결승에서 풍생고 박성규(청)가 오성고 노형상에게 원발 뒤돌려차기 몸통공격을 성공시키며 2-1로 승리를 거두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판정승

▼여중부 페더급 결승에서 대원여중 전소영(청)이 역삼중 정혜리를 맞아 치열한 접전 끝에 판정승을 거두었다.



대한태권도협회 노유중 전무이사가 여중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대원여중의 전소영(페더급 1위)에게서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



여고부 우승을 차지한 리라공고의 박영수 코치가 중교연맹 박종식 전무이사로부터 우승기를 받고 있다.

제 9회 문화관광부장관기전국남녀중고태권도대회



풍생고 영광의 얼굴들

◀ 남고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풍생고
왼쪽부터 이경배 감독,
박일(해비급 우승),
박성규(핀급 우승),
김산우(라이크급 3위),
서정훈(플라이급 3위)과
지도상을 수상한
김정식 코치.

신관중
신흥 강팀 부상

▶ 신관중학교는
팀창단 2년만에
남중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신흥
강팀으로
부상했다.



‘잘했다! 득점이!’
같은팀 소속선수가 득점을 올리는 순간 환호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서울올림픽 개최 10주년 기념

사마란치 IOC위원장 축하 보내와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찬사를 받는 '88 서울올림픽이 9월 17일로 개최된 지 10주년이 되었다. 최근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김용웅 IOC집행위원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온 축하를 통해 "인류 최대의 종합제전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평화로운 세계건설이라는 올림픽 이상을 실현했다."고 평가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스포츠인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인 또 한번의 쾌거"라고 찬사를 보내왔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

사마란치 IOC 위원장 축하

전세계 올림픽 운동 관계자 모두를 대표하여 본인은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 24회 올림픽대회 개최 1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그리고 한국 스포츠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수천년 빛나는 문화유산을 전세계 지구촌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서울 올림픽대회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훌륭한 대회였으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한국이 이루어낸 수많은 업적을 총체적으로 유감없이 반영한 인류 최대의 종합제전이었습니다. 또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체육과 스포츠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입증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스포츠인 태권도가 세계 선수권대회를 포함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대회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그 우수성과 탁월함이 검증되었으며, 이에 따른 끊임없는 노력이 거듭된 결과로 오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위업을 달성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바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인 또 한번의 쾌거이자 올림픽운동사에 기여한 또 하나의 업적으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제 24회 서울 올림픽대회이말로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교육에 이바지함으로써 평화롭고 보다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올림픽 이상을 그대로 실현해 냄으로써 올림픽운동의 위상을 온누리에 확고히 해 주었습니다. 서울 올림픽대회는 바로 우정과 관용의 시대 그 자체였으며,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 모든 차별을 불식시켜 준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 올림픽 운동 증진에 건전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은 물론 세계 만방에 걸쳐 올림픽운동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본인의 동료이자 친구인 김용웅 IOC집행위원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특별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스포츠와 올림픽증진에 귀중한 공헌을 하고 있는 모든 남녀선수, 임원, 코치, 스포츠 기술분야 관계자 및 스포츠 가족 모든 분들께도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금번 서울 올림픽대회 1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스포츠 운동사의 중대한 획을 긋는 행사로서 찬사를 보내며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88 서울올림픽 식후공개행사로 펼쳐진 태권도 시범, 태권도의 힘과 정신,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알렸다.



건군 50주년기념 제 7회 국방부장관기전국태권도대회

9월 8~10일
(국군체육부대)

삼성물산, 한체대, 해병대 종합우승

건군 50주년기념 제 7회 국방부장관기대회가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군체육부대에서 3일간의 열전을 치렀었다.

남자부, 여자부, 군 대항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삼성물산, 한체대, 해병대가 부별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유용진, 이선영, 안홍엽이 각각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개막식후 공개행사를 마치고 대관회장에서 청용태 국방장관은 '군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식후공개행사로 열린 특전사의 격파시범 모습
군 특유의 과감한 시범으로 군인들의 패기와 용맹성을 보여주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9월호 화보 60~61쪽 제목은 제 10회 경희대총장기전국남녀고등학교태권도대회가 아니라 제 33회 대통령기전국단체대항대회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건군 50주년기념 제 7회 국방부장관기전국태권도대회

예선전서 진승태 누른 상무의 김홍일

▶예선서 진승태를 누르고 파란을 일으킨 상무의 김홍일(청)이 플라이급 결승에서 한체대의 민병석(홍)을 공격하고 있다. 김홍일이 3-2로 승리

▶대회장의 박준근 국방부 인사복지국장이 페더급 우승을 차지한 유명진(삼성물산)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며 축하해 주고 있다.



해병대 태권도 대표 선수단

▶군대훈련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해병대. 지난해에 이어 2연승을 거두었다.

충청대학장컵

'98 세계청소년 태권도 문화관광축제

8월 18 ~ 22일

국기태권도를 세계청소년 문화관광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98 충청대학장컵 세계청소년 태권도대회'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19개국에서 7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충청대 경기장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인도네시아 선수(홍)의 오르발 뒷차기공격을 원발로 받아치는 러시아 선수(청)의 치열한 접전

▶참가선수단 환영리셉션에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오경호 충청대 이사장, 김영세 충북교육감, 이원중 충북도지사, 정종택 충청대학장. (왼쪽부터)



개회식에서 각국의 선수들이 국기를 앞세우고 입장했다.



고난도 격파시범

▲대회를 주최한 충청대학의 태권도 시범단이 고난도 격파시범을 보이고 있다.

▶충청대학의 정종택 학장이 뛰어난 기량을 보이며 입상한 선수에게 악수를 건네며 축하해주고 있다.



식후 공개행사는 흥겨운 농악 한마당이 펼쳐져 세계 각국에서 출전한 청소년에게 한국전통문화를 알렸다

PHOTO
NEWS

화보로 엮어 본

태권도계 이모저모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 이규형 국가대표시범단 감독으로부터 태권도 배우

'98 세계청소년태권도
문화관광축제에 참가하
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청소년들
이 국기원에서 이규형
국가대표시범단 감독으
로부터 태권도의 진수를
맛보았다.



이규형 감독의 태권도 동작 하나하나를
집중된 눈빛으로 보고 있는 외국 청소년들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102기 사범 지도자 연수교육 실시

국기원 태권도지도자연수원은 지난 8월 3일부터 7일
까지 102기 사범지도자연수교육을 실시하고 150명의
신임 지도자를 배출했다. 앞으로 태권도지도자로 활약하게 될 수료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김운용 국기원장을 비롯한
임운규 부원장, 김호재 연수원 학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102기 사범지도자교육 수료생들이 현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삼성물산 태권도부

「교남소망의 집」과 자매결연

정신지체아들 후원 앞장

지난 8월 21일 강서청소소년회관 태권도장에서는 「교남 소망의 집」 정신 지체아들이 지난 1년간 배운 태권도를 뽐내며 승급심사를 보는 뜻깊은 날이었다.

이 자리에서 삼성물산 태권도부는 올 1월부터 선수와 코치, 감독이 조금씩 모아는 100만원을 소망의 집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며 자매결연을 맺었다.

김세혁 감독은 "지난해 말 태권도 한마당 97 대회에서 정신지체아들이면서도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해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망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은 삼성물산 태권도부는 앞으로 일년에 두차례씩 성금을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시간이 되는데로 이들을 찾아가 태권도 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기용훈련장에 초청,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소망의 집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정신지체아들이 모두 18명.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화숙 사범은 94년부터 강서청소소년회관 어머니교실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해 오는 11월 3단 승급을 앞두고 있는 주부로 스승인 한규인 관장의 추천으로 무료봉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소망의 집 황규인원장은 정신지체아들은 아주 낮은 지능과 함께 자폐증을 앓거나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태권도를 수련을 통해서 체력단련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기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태권도가 정신지체아에 대한 교육적인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호평했다.

한편 삼성물산이 정신지체아들을 후원한다는 뜻을 전해들은 한국스포츠 이상일 사장은 이날 태권도 용품일체를 제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삼성물산 김세혁 감독(오른쪽)이 소망의 집 김화숙 사범과 수련생 대표 김정식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

「태권도로 맺은 따뜻한 사랑」

▶삼성물산 태권도부는 소망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고 앞으로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기로 했다.



싱가포르, 카타르 대표팀 12월 아시안게임 앞두고 전지훈련

12월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각국의 중주국에 대한 전지훈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국가대표팀은 존립 싱가포르 태권도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 4명과 박현숙 대표팀 코치, 선수 7명 등 모두 12명이 지난 8월 23일 한국에 도착해 태릉선수촌과 한체대, 서울체고 등에서 전지훈련을 갖고 8월 30일 출국했다.

또한 카타르대표팀은 마무드 핫산 대표팀 단장을 비롯해 지재기 코치 등 모두 18명이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달간 태릉선수촌과 한체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지훈련을 가졌다.

카타르는 지난 5월 베트남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해비급 동메달을 따낸 살렛에게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28일 국가원에서 열린 대학연맹대회를 관전하러온 싱가포르태권도협회의 존립회장(오른쪽)과 남동진 사무총장(왼쪽)은 전수선 대한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과 환담을 갖고 앞으로 양국간 정기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3년전부터 싱가포르대표팀 코치로 활약하고 있는 박현숙씨, 박 코치는 '싱가포르의 태권도 수준은 매우 낮은편이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입상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태릉선수촌에서 한국대표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카타르 대표팀.